15일 Market Index
코스피 5554.22 (-454.59)
코스닥 760.82 (-63.06)
금리(국고채 3년) 3.867 (+4.50)
환율(원-달러) 1342.80 (+4.5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코스피 7% '뚝'… 한때 5500도 붕괴

美 금리 공포·AI 투자수익 우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 보여
삼성·하이닉스 각각 9%·11%↓
AI·반도체 관련기업 주가 직격탄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하락한 5554.22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15일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7.57% 폭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5450.81까지 밀렸다. 종가 기준 6000선이 깨진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시가총액은 4580조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375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외국인이 약 3조6000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7.65% 하락 마감했다. 하락폭이 커지자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코스피·코스닥에서 모두 발동됐으며,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도 동반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때 20분 동안 모든 매매를 중단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에서 3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팔자'를 이어갔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도 208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폭락한 21만원과 12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닛케이225지수(-4.90%), 대만 가권지수(-3.41%)를비롯해 중국·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에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금리 인상 공포가 번지면서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3.6%를 웃돈 데다 8월 상승률 3.4%보다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전날 22%에서 37%로 뛰었다.

금리 인상 공포는 AI 투자를 위해 막대한 빚을 내고 있는 AI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각각 15%, 10% 폭락했다. 높은 이자 부담이 AI 투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4% 넘게 하락했고, AMD와 샌디스크도 5% 이상 급락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를 넘나든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4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높여 실적 악화를 부를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이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돼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 주가엔 악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 사 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 메 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 5개월 만에 반등

9월 신청건수 24%, 가격 1.43%↑
강남3구·용산, 신청 늘고 가격 하락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신청가격 흐름은 권역별로 엇갈렸다. 9월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24.1% 늘었고 신청가격은 서울 전체 기준 1.43% 상승했다. 하지만, 강남3구·용산구는 오히려 0.32% 하락했다.

서울시는 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367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8월 2963건보다 715건 늘어난 규모다. 신청 건수는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2963건으로 넉 달 연속 감소하다 9월에 증가했다. 9월 신청 건수는 4월의 41.3%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용산구의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신청은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602건에서 778건으로 29.2%, 서남권 4개 구는 549건에서 716건으로 30.4% 증가했다. 강북권 10개 구는 1457건에서 1646건으로 13% 늘어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신청 건수 자체는 네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에서 강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전월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강북권 비중은 4월 40.7%에서 8월 49.2%까지 넉 달 연속 상승했으나 9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권역별 비중은 강북권 44.8%, 한강벨트 21.2%, 서남권 19.5%, 강남3구·용산구 14.6% 순이었다.

토허 신청가격은 서울 전체에서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2.45%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강북권도 2.07% 상승했다. 한강벨트는 0.19% 올라 상승 폭이 둔화했고,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다. 8월에는 서울 전체가 0.44% 상승한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와 서남권은 각각 0.49%, 0.46% 하락했었다.

서울시는 강북권과 서남권의 상승 배경으로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점을 들었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임단협 등 진통… 조선·철강, 노무부담 가중

'노란봉투법'에 교섭의제 이견 잦아
하청교섭 법정분쟁 등 갈등 고조

조선·철강업계가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더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 문제로도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고용안정 등 교섭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2차 원청교섭을 열고 고용·노동조건 승계, 임금·복지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돼 8일 첫 교섭에 나섰다.

하청교섭이 시작됐지만 정규직 임단협은 난항이다. 사측은 기본급 13만8689원 인상과 일시금 750만원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확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정규직 임단협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하청교섭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노사는 지난 2일 기본급 12만원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13일 제23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고정급 중심 임금체계와 옛 HD현대미포와의 단체협약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조와는 지난 3월 교섭요구 확정 공고 이후 6개월 넘게 상견례도 못 했다. 사측은 휴가비·산업안전 등 6개 의제만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성과급·고용안정·노조활동 보장까지 9개의 제를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철강업계에서도 하청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하청교섭 관련 법적 분쟁에 정규직 임금협상 난항까지 겹쳤다. 노사는 지난 14일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2.0%에서 2.2%로, 일시금을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인 사측 제시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저러니까 李 지지도 떨어져"…박지원, 민주당 내홍에 쓴소리
▲안철수 "北 지뢰도발을 '재수없는 사고'?…李, 국군통수권자 맞나"
/사진 뉴시스

▲한미,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놓고 입장차…"조건 바뀌어" vs "골대 옮기면 불가"
▲정부, '韓 인터넷 속도 세계 22위'에 "측정 기준 없는 통계 유감"

▲특검 "전국 30곳서 투표자수 허위 입력"…중앙선관위 등 7곳 압색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소방 노조 "명예훼손 망언" 사과 요구

뷰티-제약·바이오, 교차진출 활발
중남미 등 글로벌 사업 영토 확장

뷰티기업, 에스테틱 저변 확대
제약·바이오, 화장품 매출 상승
"융합 생태계가 대세가 될 것"



스킨부스터 '에이지알'과 '에이지알 플러스 G' /에이피알

K뷰티 대표 주자인 에이피알이 전문 스킨부스터를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기존 보톡스·필러·스킨부스터 등 전문 미용의료 기기와 의약품을 다루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고기능성 화장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한 상태. 바야흐로 K뷰티와 제약·바이오 간의 영토전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스킨부스터 제품을 중남미 시장에 본격 공급하기 시작한다. 오는 20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현지 클리닉 관계자와 의료진, 인플루언서 등 약 300명을 초청해 공식 대리점 인증서 수여식과 사전 출시 행사를 개최한다. 칠레 시장 내 정식 출시일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됐다.

이번에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은 '에이지알'과 '에이지알 플러스 G' 등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연어 DNA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에이지알'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피부 도포 방식의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고, '에이지알 플러스 G'는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로 피하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수출용 4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에이피알은 용도와 투여 방식에 따른 제품군을 바탕으로 현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체 생산 역량도 갖췄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스킨부스터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국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에이피알팩토리 제3캠퍼스를 PN 소재 전용 생산 시설로 고도화했다. 제3캠퍼스는 관련 인허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일본, 중동 등 글로벌 전역으로 스킨부스터 공급을 넓히는 한편, 국내 시장 출시를 위한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에이피알이 화장품·뷰티 디바이스에서 전문 에스테틱 영역으로 저변을 넓히는 사이, 기존 미용의료 강자들은 반대로 화장품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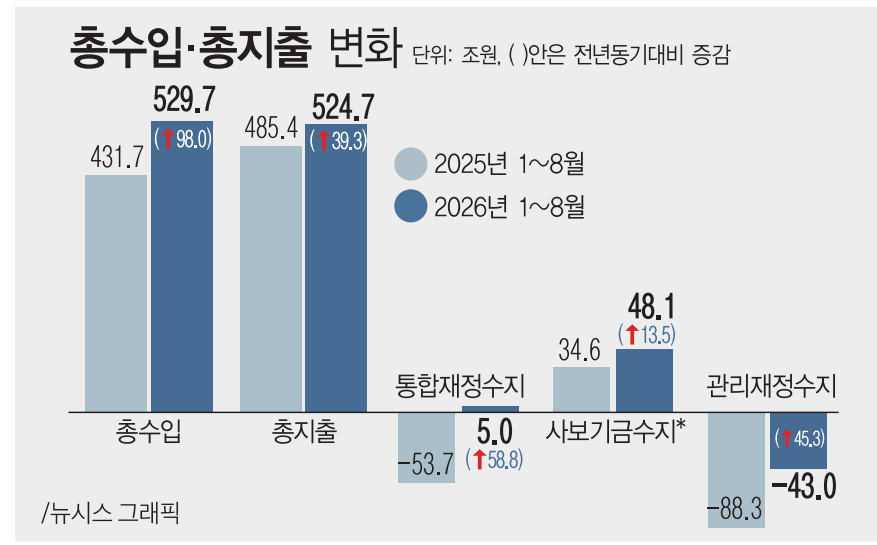
휴젤의 올해 상반기 누적 화장품 매출은 3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4.35%까지 올라서며 톡신 58%과 필러·스킨부스터 26%의 뒤를 이었다.

실제로 휴젤은 클리니컬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의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 진출해 있다.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과 협업해 미국 유명 뷰티 편집숍 세포라 매장에 입점하기도 했다. 또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에서 팝업 행사를 선보이는 등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PN 제형 안면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으로 시장을 개척한 파마리서치 역시 화장품 사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안착시켰다. 파마리서치의 전체 매출 구성에서 의료기기 54%에 이어 화장품 매출 비중은 32%까지 확대됐다. 리쥬란 브랜드를 활용한 힐러라인, 클리닉라인, 더마힐러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의 화장품 사업 성장은 메디컬 스킨케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며 "스킨부스터라는 전문성과 뷰티라는 대중성을 아우르는 융합 생태계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1월~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 8년래 최저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법인세 급증

반도체 호황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8조 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총수입은 529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8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329조9000억 원으로 69조1000억원 늘었다. 8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79.4%로 80%에 근접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9조2000억 원, 19조8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증했다. 누적 법인세 수입은 91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 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이 기간 101조1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 역시 전년대비 증가(14조 4000억 원)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수가 확대된 영향이다. 또 증권거래세(9조2000억 원)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환원 등에 힘입어 7조 원 증가했다.

8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9조 3000억 원 증가한 5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 2000억 원, 기금지출은 148조5000억 원으로 8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5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3조7000억 원 적자)에 비해 58조8000억 원이나 적자가 개선됐다. 8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8년(16조 원 흑자)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년 동기(88조3000억 원 적자) 대비 45조3000억 원이나 개선됐다. 올해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12조 원 적자) 이후 가장 작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이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7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4조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불법으로 전시되는 야생동물… 실태 파악도 못 해

야생동물법 개정안 시행 3년
미신고 동물 사실상 방치 상황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포털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알파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탔다. 실제 업장을 방문해보니 흰색 알파카 두 마리가 있는 사육장에 손님들이 커피를 들고 알파카를 구경하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해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장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먹이주기를 위한 먹이 판매도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캠핑장. 캠핑장 한 켠에 알파카 사육장이 있다. 흰색 알파카, 갈색 알파카가 한 마리씩 울타리 쳐진 사육장 안을 돌아다녔다. 입장료를 내고 손님으로 찾아 온 아이들이 땅바닥에 있는 잔디를 뽑아 알파카에게 연신 먹였다. 이 곳도 지자체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장이었다.

캠핑장, 대형카페, 동물카페 등의 영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정부가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개정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김포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 야생동물법


경기도 용인의 한 캠핑장에 조성된 알파카 사육장. /독자 제공

이 시행된 2023년12월13일 이전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완료해 내년 12월13일까지 유예된 건에 대해서만 해당 종과 개체 수를 파악했고, 미신고 종들과 개체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2023년 이후 4년의 유예 기간 중 3년이 지나고 있지만, 미신고 동물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개정된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는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야생동물을 들여와 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육 환경 조성과 전문 인력 고용이 필요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 단속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전시유예 미신고 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접수나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야생동물카페 및 동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먹이주기·만지기 등 체험행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점검횟수는 ▲2023년 7회 ▲2024년 62회 ▲2025년 69회 ▲2026년 5월까지 123회였고 체험행위 위반 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건은 2024년 3건, 2025년 2건에 그쳤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 보호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신고 전시시설 내 야생동물의 유기·방치 등에 대비해 보호시설 확충, 서식지 외 보전기관 및 동물원 활용 등을 통해 야생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덜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야생동물법 개정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표명된 만큼 전시 야생동물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정부는 미신고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고 법령에 대한 홍보를 사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전력수급기본계획 공론화 대주제 확정

원전공론화 위원회 2차 회의
원전 계속운전 등 논의 제외

국가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대주제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해졌다. 부제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 역할과 비중'이다. 기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 등은 논의 범위에서 빠진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번 공론화의 대주제와 부제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과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을 맡을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원자력, 중립 등 각계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차기 회의까지 환경단체 및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쟁점은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의제에서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 등 4가지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 전반의 큰 그림과 원전의 역할이라는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등을 위해 계속운전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운전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외국인 '셀 반도체'에 휘청… 코스피 낙폭 키운 쏠림의 덫

外人 삼전·하이닉스 180조 순매도
전체 매도액 88% 두 종목에 집중
AI투자 불신에 반도체 쏠림 위험 부각
34조대 빚투 잔액도 하락 부담 가중
월가선 韓 AI 반도체 성장성 낙관
코스피 9000선 회복 가능성도 제기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와 유가·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주 쏠림과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 낙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병목 우려, 중동발 지정학 갈등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이로 인한 금리 급등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흔들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코스피의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던 만큼 차익실현 매물도 많이 출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상승분 반납만으로는 유독 가파른 낙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AI 투자 우려로 반도체주가 중심인 한국 증시가 큰 부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이탈로 인한 수급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AI·유가·금리 겹악재

시장은 AI와 한국 반도체 대한 '무너진 신뢰'에서 답을 찾는다. 외국인 매도도 '셀 반도체'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각각 89조1734억원, 91조3862억원어치 팔았다. 두 종목 순매도액이 외국인 전체 순매도(약 208조원)의 87%에 달한다. 두 종목 모두 4월 한 달 순매수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시장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AI 관련 유망 투자처로 대만 증시를 꼽았다. 한국 코스피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마땅한 AI 수혜 기업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정책 실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는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네트워킹·서버 등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크게 집중돼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구심이 커질 경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투자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6년 약 1조달러에 이어 2027~2030년 추가로 6조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투자 비용과 금융비용, 12%의 투자자본수익률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달러의 매출이 필요하나 실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최대 3조60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동안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AI주들을 둘러싼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결국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이 설비투자(CAPEX) 확대 규모에서 투자자본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물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발목을 잡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Oil+inflation)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재점화했다.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탓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10월 금리 인상 확률을 전날 22.1%에서 51.5%로 대폭 상향 반영했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지고 소득이 늘면서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관은 유가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2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8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했다.

◆불안한 시장, IB '상승 여력 충분'

"(한국 증시는)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대부분 현지 개인 투자자에게 남을 수 있다."(월스트리트저널 7월 6일)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겉 모습만 보면 불안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 3478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4580조원으로 1100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518조원)와 SK하이닉스(448조원)의 증가분이 966조원(88%)에 달한다. AI 열풍 등으로 반도체 '수퍼 사이클'이 올 것이란 기대에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88%를 두 종목이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했던 것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반도체에 몰리며 쏠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수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들어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234억원에 달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 자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14일 33조7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38조6328억원과 비교하면 약 87%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시장에서는 지나친 걱정이란 평가가 많다.

월가 대표 기술주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요크빌 아이브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글로벌 AI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AI 사업의 심장 같은 존재다"고 했다. 이어 "현재 투자자들은 AI 시대에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코스피는 향후 6~12개월 안에 전고점인 9000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가계대출 2.2조 감소… 연말 반등 '경계'

9월 전 금융권 9개월 만에 순감
은행 주담대 증가폭 2.9조로 축소
기타·2금융권 동반 감소세 확대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연말 대출 쏠림 가능성에 대비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첫 순감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3조5000억원에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가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으로 둔화한 뒤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했다.

◆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둔화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입주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만2000호에서 8월 3만4000호로 줄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2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2금융권도 감소세 확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저축은행은 4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감소 배경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거래 둔화 등을 꼽았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9월 가계대출 순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연말 대출 쏠림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반기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철거멸실 특례 해소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보증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축 입주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한다. 분양 당시 예상했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수요자가 차질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분양사업장에서 자금 애로가 발생하면 금융권과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제철, 사내하청 임금·고용안정 교섭 이견

›› 1면 '임단협 등 진통… '서 계속

하청교섭은 원청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단에 사측이 불복하면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첫 변론은 12월 3일 예정이며,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다뤄진다.

정규직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제철도 하청교섭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정규직 임단협에 이어 9월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조와 산업안전 분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다.

그러나 별도 사내하청 조직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은 진전이 없다. 지난 7월 실무회의에서 노조는 임금·성과급·고용안정·복지·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산업안전 외 의제는 교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견례조차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실거주 의무 유예신청 한 달 새 62건 ↑

›› 1면 '서울 아파트 토허신청… '서 계속

다만 토허 신청가격 변동률은 해당 월 자치구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신청 건수나 가격 변동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 신청 증가에 정부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와 대출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9월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였다. 8월 136건보다 62건 늘었고 비중도 0.8%포인트 높아졌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69건,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이었다. 6~9월 누적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 1만6536건의 4.9%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은 누적 5만9619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8170건(97.6%)이 처리됐다. 9월에는 3678건이 신청되고 3526건이 처리됐다.

/이현진 기자 lhj@

생산 늘리고 AI·수소 공략… 현대차, 인도서 미래시장 선점

인도 핵심성장·전략 시장으로 규정
그룹 차원 HMG 인디아 설립 예정
전기차 4종, 충전 인프라 투자 계획
포트폴리오 절반 하이브리드차 구성



(왼쪽부터)현대차그룹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현대차 타룬 가르그 인도법인 CEO,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CEO가 14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열린 푸네 신공장 준공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생산기지 확충과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낸다. 완성차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으로 투자 범위를 넓혀 인도를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푸네 공장 준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산시설 확충과 친환경차 전환, 그룹 차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장 부회장은 인도 내 추가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해 "푸네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 17만대에서 32만대까지 빨리 늘릴 것"이라며 "그룹이 갖고 있는 110만대 생산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경쟁력 있는 차종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를 핵심 성장·전략 시장으로 규정하고 기존 생산거점의 증설과 효율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의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투자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장 부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HMG 인디아를 설립할 예정이다"며 "완성차와 모빌리티뿐 아니라 에너지, AI 등 그룹 전체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투자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현 현대차 사장은 "완성차가 전체 투자를 이끌면서 기술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전기·전력 문제 등 에너지 관련 투자도 그룹 차원에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연구 기능과 주행시험을 강화하고 현대트랜시스·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의 투자 기회도 모색할 방침이다.

장 부회장은 인도 투자 방향에 대해 생산 관련 시설의 업그레이드와 증설이 전체의 약 60%, AI·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 투자가 약 20%, 이 외에는 R&D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현지 생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과 신사업으로 투자 영역에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친환경차 전환도 주요 과제다. 호세 사장은 "2029년까지 인도에 전기차 4종을 선보이고 충전 인프라에도 투자할 계획"이라며 "배터리 팩과 전력전자 부품은 현지화했고 배터리 셀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공급망을 현지에서 구축해 비용 경쟁력과 사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도입과 관련해 호세 사장은 "2030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의 50%를 지속가능한 차량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소 사업은 모빌리티를 넘어 산업과 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전망이다. 장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빌리티부터 시작해 산업과 에너지를 연결하려 한다"며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와 버스, 트럭, 기관차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푸네(인도)=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로봇 204대에 차체 용접 전부 맡겼다… 2030년 연산 32만대 목표

르포
현대차 푸네 공장

GM 공장 인수 후 설비·품질 1년 검증
현대차 울산공장과 자동화 수준 비슷
AI로 품질 높이고 혼류 생산체계 갖춰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 차체 공정에서 로봇이 차체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양성운 기자

"기둥 빼고 다 바꿨다"(현대차 푸네 공장 의장 공정 이두형 책임)

프레스 설비가 금속판을 차체 패널로 찍어내고, 수백 개의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량의 뼈대를 완성한다. 작업자들의 손길에 의존하던 용접 공정은 로봇이 대신하고, 인공지능(AI)은 차종별 조립 조건을 조정해 생산 효율을 높인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인도 푸네 공장을 인수해 설비와 생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방문한 푸네공장의 프레스·차체·품질검사·의장 공정에서는 현대차의 제조 혁신이 눈에 띄었다. 현장 관계자는 공장 인수 후 설비 구축과 품질 테스트 등에 1년여가 걸렸다며 "기둥 빼고 다 바꿨다고 해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동화 수준도 현대차 울산공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차체 공정이다. 인도 현지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용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푸네공장은 산업용 로봇 204대를 투입해 차체 용접을 100% 자동화했다. 무거운 패널을 옮기고 용접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했다. 기존 공장 대비 생산인원을 약 50% 줄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두형 차체 공정 책임은 "이곳에서는 베뉴부터 팰리세이드까지 다양한 차종의 생산이 가능한데 AI 기술을 적용해 차량의 값을 반영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프레스 공정에서는 5400t급 설비로 차량 외관과 골격을 구성하는 패널을 생산하며 AI 기반 검사 시스템은 적외선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미세한 균열과 표면 결함을 찾아냈다. 이후 품질검사를 거쳐 의장 공정으로 넘어가면 도장이 끝난 차체에 각종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를 만든다.

특히 의장 공정은 향후 생산 차종 확대를 고려해 유연성을 높였다. AI를 활용해 차종별 조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한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차종이 추가될 때마다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차까지 시장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대차는 푸네공장의 현재 연간 생산능력 17만대를 2028년 25만대, 2030년 32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첸나이공장과 푸네공장을 합쳐 인도 내 생산능력을 110만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약 140㎞ 떨어진 뭄바이항을 통해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3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거점 역할로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품 현지화율은 85% 이상으로, 현지 협력사와 국내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푸네공장은 단순히 기존 공장을 인수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과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차종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현대차의 인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푸네(인도)=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AI 시대 속 디자인 획일화에 사람 중심 디자인 강조

'서울디자인위크' 삼성전자 전시 투어
이탈리아 예술가와 자사 제품 재해석

"여러분 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실과 책상도 모두 다르지만 TV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사장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디자인 위크 2026' 삼성전자 전시 투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전자제품 디자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력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이 제품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은 사랑의 표현(Design is an Act of Love)'을 주제로 이탈리아 디자인 연구기관 폴리디자인(POLI.design)과 공동 기획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예술가 14개 팀과 협업해 냉장고와 TV, 스마트워치 등 자사 제품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우주선으로 표현한 작품이 공개됐다. OLED TV에는 다양한 장식 프레임을 적용했으며, 갤럭시 워치와 이동식 스크린 더 무빙스타일에는 예술가들이 제작한 영상 작품을 선보였다.

포르치니 사장은 작품을 직접 소개하며 옷이나 가구와 달리 TV 등 전자제품은 외형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활용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레임을 교체할 수 있는 OLED TV S95H를 제시했다. 전시장에 배치된 14대의 OLED TV에는 각각 다른 장식 프레임을 적용해 동일한 제품도 색상과 형태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예술가들과 협업해 제작한 프레임은 전시용으로, 현재 판매하거나 실제 제품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

이와 관련해 포르치니 사장은 디자인의 본래 목적에 대해 "기업의 매출 확대보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될수록 제품 디자인이 획일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AI × (EI + HI)'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AI에 감성지능(EI)과 인간의 상상력(HI)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AI를 디자인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제품 개발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앞서 회사가 공개한 AI 기반 디자인 검증 솔루션 'AI 디자인 컴패니언(AIDC)'도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한 사례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번 전시는 디자인을 통해 기술이 개인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으로 제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DDP 아트홀 1층 DDP 라운지에서 열린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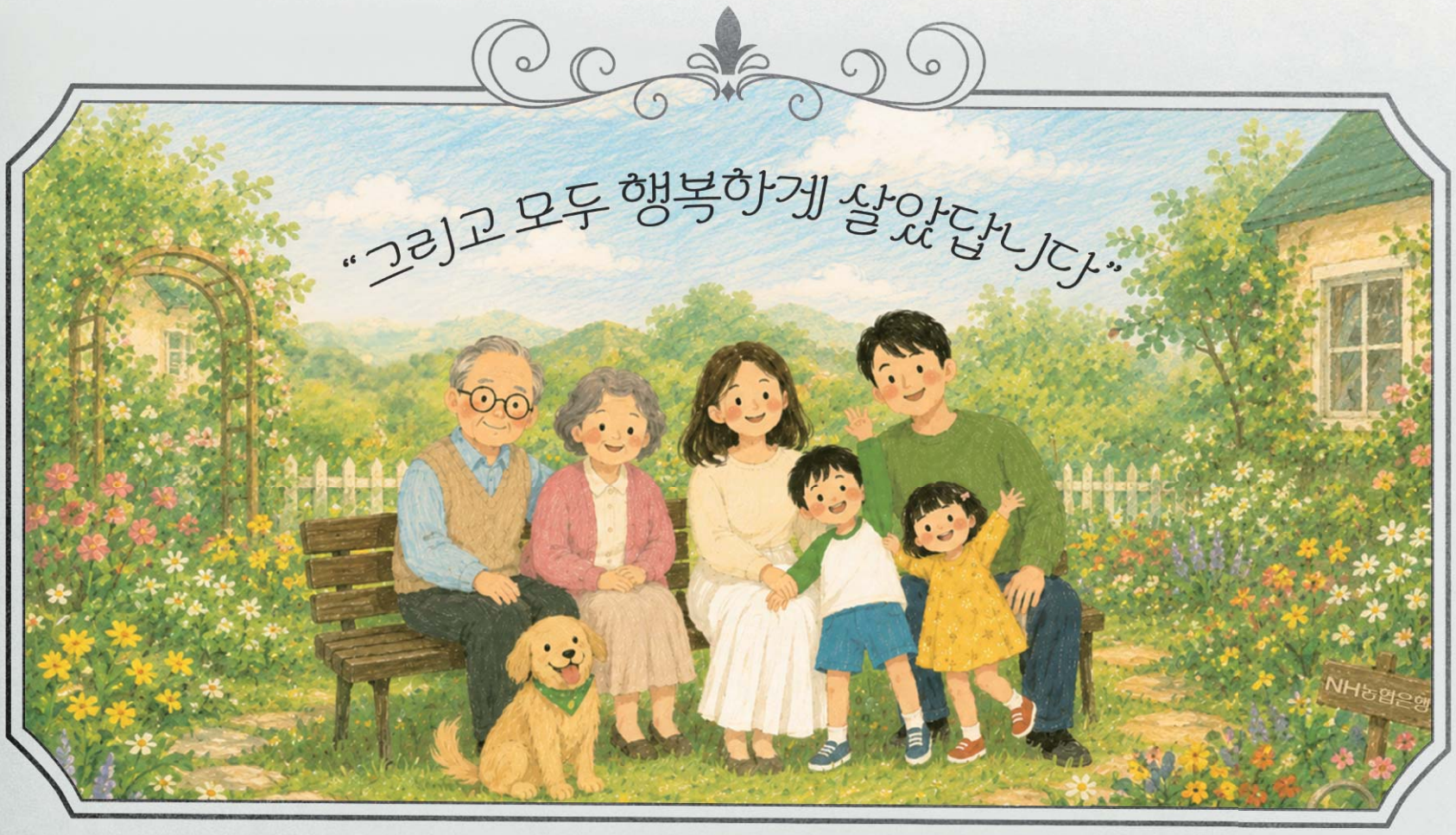




❶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사장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디자인 위크 2026' 삼성전자 전시 투어에서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❷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우주선으로 표현한 브루토의 영상 작품 '아우타스페이스'. /구남영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상상속 이야기?
당신의 상속이야기!

| NH 사랑THE 유언대용신탁 |

당신의 소중한 유산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고
온전히 행복으로만 이어지도록

NH 사랑THE 유언대용신탁이
당신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NH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금전, 부동산, 증권 모두 신탁 가능
NH농협은행 대표 신탁
*가입금액: 금전 5천만 원 이상 / 금전 외 신탁재산 합산 1억 원 이상

NH 사랑THE 금전유언대용신탁
금전만으로 간편하게 신탁 가능
소액부터 시작 가능한 모두의 신탁
*가입금액: 금전 5백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을 통한 상속 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의 기본보수는 신탁원본 0.3% 1회 선취(단, 최저기본 보수 50만원), 생전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보수 발생(개별신탁계약에 따름), 사후 신탁보수는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관리·처분·지급 보수입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신탁부]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4564(2026.08.13~2027.08.12)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4161호(2026.09.01~2027.08.31)

NH농협은행

與 "리베이트 수사 왜 안 했나" vs 野 "오세훈 흠집 내기"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시 국감
한강버스 '뒷돈 의혹'에 오세훈 압박
GTX-A 공사 지연 등 책임 공방
"보강공사 관련 절차 진행"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뒷돈 수수) 의혹을 고리로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오 시장 흠집 내기'라며 엄호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의혹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자료 파기 의혹을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확대를 경계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행 지연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與,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 리베이트 의혹 집중 추궁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더 충격적인 건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의뢰 하자는 얘기가 됐는데,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보고 자료와 수사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보고한 현안조사사항 보고서와 같은 달 12일 전후 작성돼 오 시장에 전달됐을 수사의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9월경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野, GTX 지연 책임 따져…용산공원 주택 활용엔 우려

국민의힘은 GTX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과 운행 지연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지 활용 검토에 우려를 제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졌다"며 "서울시가 알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은폐·축소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파악한 상태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철근) 보강공사를 하면 예정된 올 8월에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공원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용산공원이 오랫동안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부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체 부지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탄천 부지를 활용해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심화되는 전월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삶의 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안정된 주거"라며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부담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만 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기업 총수 증인 미채택에 반발… 기노위 국감 끝내 파행

국힘, 관계자 출석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 비판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보건기술원의 자료 미제출에 항의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기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3대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총수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함에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감은 이른바 '명지(이재명·김현지)라인'으로 불리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등 제출 거부로 파행됐다.

기노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 진행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호남에 투자하게 놔두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이 지역감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과 경제계 입장에서 제일 예민한 규제가 환경과 노동 규제"라며 "기업 활동을 해보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란봉투법, 주52시간제가 다 시행되고 있어서 SK와 삼성 총수가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과 노동 규제가 국회에서 양산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노동과 환경 규제를 다 걷어내는 식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걷어내는 식으로 하는데, 기업과 노조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연 배우 없는 드라마랑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 용수와 관련한 피감기관 관계자가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상임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자료 미제출로 파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원장 공모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나,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남광우 원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동근 사장의 경우, 사장 공모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모두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장직에 최종 임명됐다.

국민의힘, 용인갑 경선 두고 고성 충돌

양향자-장동혁 최고위서 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결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해당행위'라며 강하게 맞섰다.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추진한 '당원직선제'가 이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처음 도입된 가운데, 양 최고위원이 도전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ARS 투표 통신사 오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ARS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선투표 재선거'를 결정했으나, 양 최고위원은 타지역 당협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총 4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용인갑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많다.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실 사태)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며 "전체 선거 전수조사,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겠다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된 이후에도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 등이 양 최고위원과 설전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 "소설 쓰고 앉아 있다"라고 말하며 "재투표 당일에는 결과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 대표 역시 "재선거하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 만들고, 올공에 나가 참정권을 위해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정치를 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 기자 syj@

강훈식 시장 차출론에 김민석 "미래 열려있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또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며 "본인이 조금 쉬고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더 깊게 들어가는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할텐데 그것이 얼마나 허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달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 시장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사회자가 '강 전 실장이 그리 마음대로 오래 쉬지 못할 것 같냐'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될 때"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4일) 강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전 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강 전 실장은 15일까지 업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청정원 30th ANNIVERSARY

DAESANG 대상주식회사

우리가 원하던 가득찬 오늘

오늘을 더 맛있게



청정원 모델
임윤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 입증 모호… CEO에 책임 물어야

해킹에 뚫린 금융보안

〈下〉 피해 보상과 책임

금융사, 피해액 전액 배상 한다지만
즉각적 금전손실로 이어지지 않아
피싱·명의도용, 2차범죄 악용 우려

CISO-CEO 간 권한·책임 불균형
실효성 있는 책임체계 마련 절실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경영자(CEO) 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액 전액 배상'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데다 보안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다. 금융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책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만으론 보상 어려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구제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밝힌 전액 배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반드시 즉각적인 금전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 이후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 79건 가운데 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2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금액 2780만원 중 실제 인정금액은 1190만원으로, 금액 기준 인정률은 약 42.8%에 불과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거쳐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약속하더라도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 인정 범위와 입증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금전 손실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엇갈린 권한과 책임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최고경영자(CEO) 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는 CISO가 총괄하지만, 보안 인력 확충과 대규모 시스템 투자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CISO를 지정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CISO는 정보보호 전략 수립과 보안 위험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CISO의 판단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모의해킹이나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보안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CISO가 위험성을 경영진에게 보고했는지, 경영진은 이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미뤘는지 등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 단순히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CISO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CEO 중심의 책임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개별 부서의 기술적 관리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 전체의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고, 최고경영진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수준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사회 차원의 감독 기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보고된 취약점이 실제 예산 편성과 개선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사회가 보안 위험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금융보안 책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ISO에게 부여된 책임에 상응하는 예산·인력 관련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CEO와 이사회가 보안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이후 담당자를 문책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점 발견부터 개선 결정, 예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보안 관계자는 "CISO가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더라도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결정권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안사고의 책임을 실무 담당자에게만 묻기보다 투자와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진까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화생명, 증권 출자 2500억 '비보험 확장'

4400억 애큐온 지분 50.54% 취득
6.5조 규모 저축은행 사업기반 구축
인수 후 유동성관리 무리 없을 것
K-ICS비율 5%p 안팎 하락 전망

한화생명이 계열 증권사 증자와 캐피탈 인수를 병행해 비보험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2500억원 직접 출자는 집행을 마쳤고, 애큐온캐피탈 지분 인수에는 4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는 투자에 따른 유동성 관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인수 이후 지급여력 하락과 자본관리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8일 공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한화생명이 전환우선주에 2500억원을,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보통주에 250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 캐피탈·저축은행 편입 추진

증권 투자는 기존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격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미 한화생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법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금융 등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이 취득한 전환우선주에는 보통주 전환권과 액면가 기준 연 6%의 우선배당 조건이 붙었다. 배당가능이익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하지 못한 우선배당액은 이후 회계연도로 이월·누적된다.


한화생명 사옥. /한화생명

애큐온 거래는 외부 금융회사를 편입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인수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애큐온캐피탈 보통주 지분 50.54%를 440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센트로이드 측 사모펀드(PEF)와 공동으로 인수해 금융당국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애큐온캐피탈은 한화생명의 자회사로, 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애큐온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기업금융·투자금융과 설비 등의 리스·할부를 다루는 물적금융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진다.

한화생명은 기존 한화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을 연계해 총자산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중소기업 고객 접점을 넓히고 금융 계열사 간 사업 연계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연계가 얼마나 이익을 늘릴지는 인수 이후 실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다.

◆ 자본 적정성은 과제

한화생명의 올해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90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6.0% 증가했다. 보험 본업 실적도 개선돼 별도 기준 보험손익은 2853억원으로 62.1% 늘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일 평가자료에서 애큐온 지분 취득금액 4400억원과 한화투자증권 전환우선주 투자 2500억원을 함께 검토했다. 6월 말 운용자산 103조4000억원과 현금성자산 1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유동성 관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 적정성은 별도 점검 대상으로 봤다. 한기평이 제시한 한화생명의 6월 말 K-ICS 비율은 168.0%다. 한기평은 인수 완료 시 요구자본이 증가해 이 비율이 5%포인트(p)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ICS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 규모에 대비한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지표다.

공동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도 향후 자금 소요를 살필 대목이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PEF가 보유하게 될 지분을 한화생명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돼 있어 추가 지분 취득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시에 구체적인 행사 시점과 가격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기평은 "한화생명보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주형기자 gh471@

"정확한 부동산 공시로 정책지원 강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국감 출석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사진)이 15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주간에 주택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지만 외부검증 강화와 AI 시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 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이나 상가 공실률 통계 등 신규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국감을 통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해서 집값의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의 흐름 전망을 묻는 질의에 "부동산원은 국가승인 통계인 주간 통계, 월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값) 전망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인천서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JOB매칭 페스타 in 인천'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지역 강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 하나 JOB매칭 페스타 in 인천'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라이프'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인천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시일자리종합센터 등 지역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공항·항만·관광·제조·물류·사회서비스 분야의 인천 지역 강소기업 20곳이 참여해 일대일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50여 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 게시대도 운영됐다.

특히 인지건강 매니저와 1인 크리에이터, 데이터라벨러 등 디지털 신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체험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력서 작성과 모의면접, 진로성향 진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나유리 기자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 1년 계열사 통합·대규모 사업 '약진'

계열사 통합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국내외 공장 증설… 생산능력 확충
정유부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과제


정기선 HD 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조선·건설기계 계열사 통합과 미국 시장 공략, 대규모 신사업 투자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조1246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6조95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6조996억원)을 넘어섰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HD현대 사장단 인사에서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1982년생인 정 회장이 2009년 현대중공업 입사 후 16년 만에 그룹 수장에 오르면서 HD현대는 37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로 복귀했다.

조선 부문에서는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통합 HD현대중공업을 출범시켰다. 양사의 설계·생산 역량을 결집해 대형부터 중형 선박까지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비한 함정 건조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 매출 37조원, 방산 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미국 조선·방산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키윗과는 현지 선박 건조 및 블록·모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미래 사업 투자도 본격화했다. 지난 9월 육상 발전용 엔진 생산기지에 8336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기자재 생산시설에 2386억원 등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지난 1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해 HD건설기계를 출범시켰다.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 두 브랜드를 운영하며 오는 2030년 매출 14조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진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 군산 엔진 신공장을 준공하고 방산·발전용 엔진 생산능력을 확충해 2030년 엔진 사업 매출 2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시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HD건설기계는 지난 5월 인도 굴착기 시장에서 월간 점유율 20.5%로 일본 히타치와 영국 JCB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칠레에서는 광산 밀집 지역에 거점을 신설하며 광산장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7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42억2200만 달러에서 51억8500만달러로 22.8% 상향했다.

생산능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울산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제2공장 증설에 착수해 북미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50% 늘릴 계획이다. 청주 배전캠퍼스의 중저압차단기 연간 생산능력도 500만대에서 850만대로 약 70% 확대했다.

다만 주력 사업의 경쟁 심화와 대외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7차례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정유 부문에서는 중동 정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변수로 꼽힌다. 중동 전쟁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으로 HD현대오일뱅크 실적은 개선됐으나 향후 유가와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삼성 동남아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에서 냉장고에 탑재된 카메라 기반으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비전' 기능을 시연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동남아 최적 AI 가전·솔루션 선봬

베트남 하노이서 '더 브리프' 개최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현지 생활환경에 맞춘 인공지능(AI) 가전과 통합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BES)'에서 동남아 가전 테크세미나 '더 브리프(The Brief)'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행사가 열린 BES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하노이 PVI 타워에 개관한 전시공간이다. 상업시설을 구현한 공간에서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분석해 가전을 제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홈 기술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 식재료를 관리하는 'AI 비전' 기능을 시연했다. 제품 관리 서비스도 소개했다. 전문 상담사가 원격으로 가전제품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가전제품 원격지원(HRM)'과 와이파이 탑재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제공하는 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공조 솔루션도 공개했다. 가정용 에어컨부터 호텔과 사무실 등 대형 상업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어컨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美 초고압 전력망 사업 턴키 수주

대형 수주 잇달아… 시장 입지 강화

대한전선이 올해 초에 이어 미국에서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사업을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망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잇따라 대형 사업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한전선은 미국 법인 T.E.USA가 현지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T.E.USA는 엔지니어링과 시공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주요 자재를 생산·공급한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T.E.USA와 약 1200억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공시했다. 엔지니어링과 시공 등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수주액과 발주처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전선은 지난 1월 약 1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턴키 프로젝트에 이어 미국에서 대형 사업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그동안 미국에서 발주된 500kV 초고압교류송전(HVAC) 지중 전력망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했으며 32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도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현지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초고압 케이블에 더해 HVDC와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인터, 에너지·팜 사업 기반 성장세

美 가스전 확보 등 수익 기반 확대
"철강 이익 감소 상쇄할 체력 갖춰"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팜 사업의 이익 확대로 철강 부진을 메우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호주 가스전 증산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 성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가운데 미국 가스전 확보를 추진하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조7295억원, 영업이익 39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83%, 영업이익은 23.68% 늘어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에너지·팜 사업의 투자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에너지(SENEX)의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가격 상승·개발 투자비 회수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팜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인수로 확대된 생산 기반이 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넥스에너지는 가동 중인 증설 설비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 생산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얀마 가스전은 전 분기보다 이익이 줄겠지만 고유가 반영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과 4단계 개발 투자비 회수 효과가 감소 폭을 일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가스전은 개발 과정에 투입한 비용을 가스 판매를 통해 회수하는 계약 구조다.

팜 사업에서는 현지 자회사 PT.PAR이 재배 관리 개선과 농장 운영의 디지털화, 재식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PT.PAR의 수확량 증가와 기존 농장의 양호한 작황이 더해져 팜 사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자산의 생산 확대에 이어 미국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14일 코드에너지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마셀러스 분지의 비운영 셰일가스 자산을 5억5000만달러(약 7417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중순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인수 대상은 이미 가스를 생산하고 있어 거래 종결 이후 판매 수익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지 운영사가 생산·시추·인허가를 맡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생산가스를 직접 판매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가스 일부를 액화해 LNG 트레이딩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광양 제2 LNG터미널의 연말 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준공 이후에는 그룹사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트레이딩·벙커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호주 세넥스와 인도네시아 팜 등 인수 자산의 성과로 철강 트레이딩 부문의 이익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며 "북미 가스전 인수로 2027년부터 이익 성장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3분기 매출 5조 돌파… 역대 최대

매출 5조448억, 영업익 4212억

대한항공이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해외발 여객과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지난 3분기 매출이 5조4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63억원(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42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9억원(12%) 늘었다. 고유가 여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2분기(2618억원)와 비교하면 약 61% 증가했다. 다만 연료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8.3%로 전년 동기(9.4%)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당기순이익은 3분기 말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등에 힘입어 92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919억원) 대비 912% 급증했으며, 973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2분기에서 흑자 전환했다.

화물 사업 매출은 1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56억원 증가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지역별 수요 변화에 맞춰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여객 사업 매출은 2조9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3억원 늘었다. 유류할증료 부담과 원화 약세로 한국발 수요는 다소 위축됐으나 해외발 한국행 및 인천공항 환승 수요가 증가했다. 하계 성수기 미주·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 점도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됐다.

/유혜온 기자

“지역 성장엔진 中企 키운다”… 중견기업으로 도약 지원

이소영 중기부 장관 ‘현장 소통’
첫 방문지 충청권 1박2일 현장 행보
천안·대전·오송·세종·청주 순회
도약 참여社 간담회 기업애로 청취
내년 점프업 3단계 개편 지원 강화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


이소영 중기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강소기업 엘케이켐에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 팔도에 있는 기업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는 충청도다.

이 장관은 15일 충남 천안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오후엔 창업도시인 대전을 거쳐 이튿날인 16일에는 충북 오송시(글로벌 혁신특구)→세종시(K-뷰티기업)→청주시(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번 충청권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각 권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1박 2일 현장속으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 처음 방문한 기업은 충남 천안에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엘케이켐을 비롯해 중기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1·2기 참여사인 케이엘큐브, 영풍전자, 새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하는 전략서포터인 삼정KPMG, BCG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점프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영풍전자 하홍 대표는 “점프업 프로그램 1기 지원을 받았는데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정책’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다보니 해외 직접 수출을 위한 인력 채용이 만만치 않다. 아울러 국가마다 다른 제도, IP, 법률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에르코스 김태현 영업본부장은 “영유아 먹거리를 넘어 다양한 세대를 위한 상품 개발 과정에서 다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점프업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다만 고객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먹어도 될까’하는 우려가 있으신것 같다. 하지만 우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지원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점프업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의 성장 스케일업을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사실 정부의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크 기회 제공 등 외에 성장을 가로막는 부재나 애로 사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녹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도약 프로그램을 확대·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점프업100(매출 100억원 이상, 성장기반 마련 3년) ▲점프업500(매출 500억원 이상, 신사업·신시장 진출 3년) ▲점프업1000(매출 1000억원 이상, 글로벌 확장 2년)의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스케일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동반 상승 효과가 큰 ‘5대 핵심 분야’의 연계정책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엘케이켐과 케이엘큐브는 전략서포터와 함께 스케일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2026)에 반도체 분야 점프업 기업 6개사가 참가해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현황도 소개됐다.

이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천안(충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얇아진 온열매트, 똑똑해진 카본매트 ‘인기’

에이스침대, 1㎜ 온열매트 선봬
9월 판매량 전월 대비 2.5배 증가
귀뚜라미, AI 카본매트 시장 공략
자리 비우면 자동 절전모드 전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침대나 온돌위에 깔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는 온열 제품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닥터 서플라이와 협업해 ‘닥터스 온열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숙면을 위한 체온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매트리스 본연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특허받은 탄소 섬유 기술을 통해 약 1mm 두께의 슬림한 온열매트를 구현했다. LCD 온도조절기로 온도를 99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는 1~12시간 사이에서 1시간 단위로 맞출 수 있다. 전용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온도와 타이머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KC 안전인증과 EMF 인증, EMC 인증을 비롯해 라돈 방사능 측정 시험과 에이스침대 침대공학연구소의 내구성 실험까지 완료했다. 에이스침대가 자사 온열매트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커진 9월 중순 이후 주문이 두드러지게 늘며 계절 변화에 따른 수요가 본격화됐다.


귀뚜라미 ‘2027년형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


에이스침대 ‘닥터스 온열매트’.

난방 전문기업인 귀뚜라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2027년형 3세대 카본매트 AI 온돌’로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스마트 리모컨 중앙의 ‘AI 버튼’을 3초간 누르면 AI모드가 작동한다. AI모드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인 ‘AI 수면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잠잘 때 선호하는 적정 온도와 사용시간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수면패턴을 분석한다.

사용자가 잠자리를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AI가 알아서 대응한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인 ‘AI 척척 온도 시스템’은 매트 위 사용자의 이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수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불필요한 난방을 줄이는 절전운전으로 자동 전환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모비스, 中 상하이서 로보틱스 협력 모색

현지서 첫 모빌리티 데이 개최

현대모비스가 로보틱스 분야의 유망 협력사를 찾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중국 상하이로 기술 협력 무대를 넓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MM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열렸다. 현지 유망 기업과 완성차 업체,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는 로보틱스 부품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기업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에서 MMD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부터 북미 실리콘밸리에서 이어온 행사를 아시아로 확대해 로보틱스·반도체 등 신규 사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투자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상하이는 제조 기반과 공급망 역량을 갖추고 양쯔강 델타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이 밀집해 있어 협력사 발굴에 유리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상하이시도 로봇산업 공급망 육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산업 육성계획에는 2027년까지 관련 선도기업 100개 이상을 집적하고, 관절 모듈과 스마트 센서 등 핵심부품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한 뒤 공동 또는 독자 기술 개발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업화하는 순서로 추진한다. 기존 모빌리티 분야에서 확보해온 반도체·소프트웨어 협력 관계를 로보틱스 등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략투자와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과 실리콘밸리 투자거점인 모비스벤처스 등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쌍용C&E, 서울 떠나 강원 동해로 본사 이전

12월부터 동해공장서 본사 업무 수행

쌍용C&E가 본사를 동해공장이 있는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했다. 영월공장은 환경사업 등을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강화해 동해·영월 복수거점 체계를 구축한다.

쌍용C&E는 지난 14일 서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소지를 ‘서울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새롭게 이전한 동해공장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쌍용C&E의 본사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산공장이 위치한 동해와 영월을 중심으로 경영지원과 환경사업 기능을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생산·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대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정책지원 힘 모은다

‘中企 기술마켓 협의회’ 구성 6자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북지역에 있는 공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북혁신협의회’ 구성을 위한 6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인증·등록한 도로·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중소기업 ▲한수원·한전기술·원자력환경공단이 인증·등록한 친환경·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수출·인력 등 정책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한화시스템, 레이저 대공무기 성능 입증

육군 훈련서 드론 3대 모두 요격 성공

한화시스템이 드론 요격 성능을 연이어 입증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실전 배치된 ‘천광’과 함께 기동성과 출력을 높인 차량 탑재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대공방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4일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주관한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에서 천광(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과 30kW급 ‘전투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의 드론 요격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첨단 전투자산을 활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무기체계는 시연에 투입된 드론 3대를 모두 요격했다.

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다. 1회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으로, 별도의 탄약 보급 없이 전력을 공급해 운용할 수 있다.

함께 시연한 30kW급 레이저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가 사업 관리를 맡고 한화시스템이 주관해 개발한 기동형 레이저 무기체계다.

/원관희 기자 wkh@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4000만 지갑에 AI 심는다… 새로운 금융 수요로 수익화 도모

k 카카오 10조 성장 전략
❷ 미래 금융시장 선점

AI 에이전트 상품 검색·구매 환경서 카카오페이, 핵심 결제 인프라 전략
법·제도 정비, AI 기술 상용화 '관건'



AI에 의해 생성된 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AI 기반 미래 금융시장 선점을 나서는 카카오 이미지.

카카오가 인적분할 이후 금융 계열사를 앞세워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금융시장 선점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4000만 디지털 지갑을 AI 결제와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카카오뱅크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사업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재편한다. 기존 결제·은행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금융 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카카오의 '2026년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AI 금융과 디지털자산, 수익원 다변화를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카카오X가 추진하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중심 사업 재편의 핵심 축이다.

특히 카카오톡의 이용자 접점과 카카오페이의 결제 인프라, 카카오뱅크의 금융 경쟁력을 연결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새로운 금융 수요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4000만 지갑에 AI 결합…결제 넘어 금융 중개까지

카카오페이의 핵심 전략은 4000만 디지털 지갑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슈퍼월렛' 구축이다.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와 송금에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 지역화폐 등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금융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카카오의 AI 서비스와 외부 범용 AI 에이전트 간 연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가계대출 중심 구조서 기업금융·플랫폼 수익으로 다변화
AI 목표적금 출시… 고객경험 강화
건전성, 비이자사업 성과는 '과제'

카카오톡의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결제 기능을 연결하고, '챗GPT 포 카카오'에서는 결제·송금·포인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가 AI에 요청하면 금융정보 확인부터 관련 서비스 연결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AI가 자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결제 표준 'x402'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카카오페이가 핵심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카카오그룹 공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과 수탁, 지급결제, 해외송금뿐 아니라 콘텐츠 구매와 글로벌 공연 티켓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제도 정비와 AI 결제 기술의 상용화가 선행돼야 한다. 디지털 지갑의 이용자 기반을 실제 거래 증가와 수익 창출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카카오뱅크, 기업금융·비이자수익 확대…ROE 15% 승부수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중심의 사업구조를 기업금융과 플랫폼 수익 중심으로 다변화한다. 2030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5%를 달성하고, 전체 여신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기업대출 비중은 2023년 3%에서 2024년 4%, 2025년 7%로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기업금융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수수료·플랫폼 수익과 자산운용 수익을 강화해 영업수익 중 비이자수익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객 기반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올해 6월 기준 고객 수는 2763만명, 월간활성이용자 수는 2032만명이다. 수신잔액은 67조1000억원, 모임통장 잔액은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AI 금융 서비스의 상용화도 시작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이용자의 저축 현황을 분석해 목표 달성을 돕는 'AI 목표적금'을 출시했다. AI를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 직접 접목해 고객 경험을 높이려는 시도다.

다만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비이자사업의 수익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ROE 15% 목표 역시 대출 성장뿐 아니라 자본 효율성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경쟁력은 이용자 규모를 실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카카오페이가 AI 결제와 디지털자산의 접점을 확보하고 카카오뱅크가 기업금융과 플랫폼 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X의 연결 대상 자회사가 아닌 만큼 금융 계열사의 성장 성과와 카카오X의 연결 매출 목표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고객 일상부터 산업 현장까지 AI 기술사례 공유

2026 AID-X데이
고객의 소리 분석, 8시간 → 10분 단축
제조·물류 현장서 로봇 플랫폼 연계


KT '2026 AID-X DAY'. /KT

KT는 그룹사 임직원들과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AX) 성과를 공유하는 '2026 AID-X 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부터 이틀간 KT 판교빌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 동안의 AX 혁신 사례와 연구개발(R&D) 성과 발표를 종합해 조직의 경험과 기술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그룹사와 각 부서가 고객의 일상부터 산업 현장까지 각 분야의 AI 기술 사례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비즈니스, 혁신, 업무, 기술 등 총 4개의 영역에서 임직원들이 축적한 AX 역량을 전시와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주요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 영역에서는 AI가 데이터 활용과 고객 경험, 기업 영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플랫폼 '마그마 BI/DW'가 있다. 8시간 가량 걸리던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VOC) 분석 업무를 10분 이내로 줄인 기술도 선보였다.

이 밖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기업간거래(B2B) 영업을 혁신한 사례도 공개했다.

혁신 영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기반의 '로봇 스킬 플라이휠'을 선보였다. 제조·물류 등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새로운 작업을 검증하는 기술이다. KT는 이를 자사의 로봇 서비스(RaaS) 플랫폼과 연계 중이다. 또한 차량 정비 분야에서 고장 가능성과 이상 징후 등을 예측해 현장 정비까지 지원하는 교통관리 AX 플랫폼도 선보였다.

업무 영역에서는 AI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해 임직원과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전사 AI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 'AX 웍스'는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KT 디자인 시스템(KDS)을 AI 개발과 연계해 화면 기획부터 UI 디자인, 코드 생성까지 연결하는 기술도 소개했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발 기간을 약 30% 단축했다.

기술 영역에서는 AI 시대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보안 기술을 소개했다. AI 보안진단 플랫폼과 비정상 문자 발송 및 이상 패턴을 탐지하는 '믿:음 K 3.0' 등을 시연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카오
新 AI 윤리원칙 공개
6대 원칙으로 구성된 'SPIRIT'
실행 체계 'NORMA'도 마련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마련했다.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6'에서 새로운 AI 윤리 원칙과 실행 체계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채택하고 카카오 서비스 환경에 맞춰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

윤리 원칙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체계 'NORMA'도 마련했다. 조직 차원의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복잡한 AI 윤리 문제를 관리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카카오는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를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에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위험 점검, 통제 항목 점검 및 판정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AI로 자율주행 기능 없이도 車 무인 이송"

SKT,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수상


13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네트워크 X'에서 나민수 SK텔레콤 비즈 테크팀 매니저(왼쪽)와 신홍석 유선 테크팀 매니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개발한 피지컬 AI 서비스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5G) 환경에서 완성차를 자율 이송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내년에 국내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

SK텔레콤은 국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분야 행사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100명 이상의 전문 연사와 1000개 이상의 글로벌 통신사와 대기업,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SK텔레콤이 개발한 AI-RAN 기반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AVM) 서비스다.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AI-RAN이 현장의 차량을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며 새로운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AI-RAN은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다. AI-RAN 기지국을 개발·실증하고, AI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통신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AVM은 차량을 이송하고 정렬하는 작업을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다(LiDAR) 센서가 3차원 좌표 형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면, AI-RAN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한다. 이후 충돌 없는 경로를 계산한 뒤 완성차에 주행 명령을 내린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모듈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무인 이송이 가능하다.

AVM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 옮기던 완성차 이송 작업을 무인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번 실증으로 최신 자율주행차에 국한됐던 자동화 범위를 일반 차량과 로봇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민선 기자

주가 빠지자 '물타기' vs '예금행'… 개미들 엇갈린 행보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 -30%
신용융자 33조7057억까지 증가
고금리 이자 부담에 주가 하락 겹쳐
5대 은행 9월 정기예금 잔액 늘어



ChatGPT로 생성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를 확대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회사원 김모(48) 씨는 지난 7월 중순경 반도체와 중공업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지수가 빠진 만큼 저점 매수의 기회라 생각해서였다. 그는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현금 2000만원에 신용융자 2000만원으로 주식들을 샀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신용융자 이자를 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이달 초 강제 청산(반대매매)을 당했다. 김 씨의 최종 수익률은 -37%였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 행보는 두 갈래다. 코스피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와 물타기에 나서는 투자자와 시장에서 발을 빼는 개미들도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개인 투자자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0.58%로 나타났다.

개미 투자자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샀지만, 이들 종목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이 기간 수익률이 -59.17%였다. SK하이닉스(-52.20%)·삼성전기(-46.75%)·현대차(-40.30%)·삼성전자(-37.13%)·한화오션(-37.79%)·두산(-33.49%) 등에서도 30~50%대 손실이 났다.

개인 투자자 중에선 주가 반등을 확신하고 '빚투'에 나선 경우도 많았다. 개인의 순매수 2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기간 융자 잔고 수는 2184만 2921주에 달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는 금리가 높은 신용융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융자 거래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이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개미'는 원금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개미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신용 거래에 뛰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개인들은 관심 종목이 급락한 뒤 저점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경우, 주가가 바닥인 것으로 인식하고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융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도 '빚투'는 8월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8월 7일 29조2304억원 수준이었던 신용융자 잔고는 14일 기준 33조7057억원까지 늘어났다. 사상 최고치인 38조6328억원(6월 24일)의 87% 수준까지 늘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반대매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4일 7.2%(893억원)까지 증가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반대매매)한다.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증시를 등지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코스피 상승세가 꺾이면서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찾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87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8552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8월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시 조정 여파에 CB·EB 권리행사 급감

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432건
BW 건수 줄었지만 금액 93.9% 증가

올해 3분기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가 직전 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는 432건으로 전 분기보다 67.8% 감소했다. 행사금액은 4254억원으로 같은 기간 71.0%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는 발행 당시 정해진 가격과 기간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이나 발행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전환·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해당한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전환·교환 가격을 밑돌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권을 보유해 이자를 받는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는 주가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예탁원을 통한 권리행사 건수는 지난해 4분기 1840건에서 올해 1분기 1823건, 2분기 1343건으로 감소한 뒤 3분기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행사금액도 올해 1분기 1조7719억원에서 2분기 1조4686억원, 3분기 4254억원으로 줄었다.

종류별로 보면 CB 권리행사는 254건,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건수는 54.4%, 금액은 66.5% 감소했다.

EB는 52건, 914억원으로 각각 72.8%, 87.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BW 권리행사는 126건으로 전 분기보다 78.8% 감소했다. 다만 행사금액은 1146억원으로 93.9% 증가해 건수와 금액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허정윤 기자



iM증권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iM증권

iM증권, 청년 152명에 금융 실무경험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iM증권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M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커리어하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8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총 152명을 선발했으며, 참가자들은 본사 지원 및 영업부서 현직자들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8주간 10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젝트는 직무별 현업 업무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실제 업무와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 참가자들의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성과가 우수한 참가자에게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iM증권은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8일부터 약 한 달간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에게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건전한 투자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위 입상자에게는 대구 지역 영업점을 통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김아영 기자 aykim@

한국투자증권, 日 JCR 신용등급 'A'로 상향

외화 장기 발행사·채권 등급 모두 상승

한국투자증권이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일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여 받았다. 일본 채권시장에서 쌓은 발행 실적과 맞물려 해외 자금조달 여건과 조달시장 다변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일본 신용평가사 JCR이 외화 장기 발행사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상향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 신용등급도 'A-'에서 'A'로 올랐다. 등급전망은 등급 상향에 따라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됐다.

JCR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견조한 수익성과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등급 상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기업금융(IB), 트레이딩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 기여도가 높아진 가운데 IB와 트레이딩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사업 부문 간 보완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적 성장세와 자본 효율성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한국투자증권의 순영업수익은 2025년 약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JCR은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토대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건전성 지표도 규제 기준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순자본비율(NCR)은 2929%로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은 644%로 규제 상한 1100%를 밑돌았고, 유동성비율은 122%로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JCR은 지속적인 이익 축적과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 확대와 시장 변동에 대응할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미국·홍콩에서 IB사업을,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위탁매매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별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美나스닥100 순자산 10조 최단기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순자산총액이 10조1509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상장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국내에 상장한 미국 나스닥100 추종 ETF 가운데 최단기 기록이다.

미국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100 지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아마존, 구글 등 전 세계 인공지능(AI)과 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 100개로 구성돼 있다.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3조2988억원에 달한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중 1위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적립식 자금이 10조원 돌파를 견인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KODEX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배경에는 ETF의 실질적인 운용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와 '정교한 지수 추종 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美배당 ETF 개인 순매수 1.3조

올해 개인 순매수 1조2827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458730)'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액이 지난 14일 기준 1조28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5종의 전체 개인 순매수액 가운데 79%에 해당한다.

순자산은 4조2833억원으로 동일 지수 추종 ETF 중 가장 컸다. 동종 ETF 내 순자산 점유율은 지난해 말 56%에서 62%로 6%포인트 확대됐다.

개인투자자 자금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유입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매달 1000억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연금·적립식 수요와 배당을 통한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대표 배당 ETF인 'SCHD'와 동일한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종한다. 2023년 6월 국내 증시에 상장했으며 분배금은 매월 지급한다.

/허정윤 기자

할랄 불고기·한우, 중동 식탁 오른다… K-푸드 수출확대 지원

상주축산농협과 UAE서 홍보활동
불고기 4종, 명실상감한우 선봬
농식품·aT 전방위 지원의 결과물



명실상감한우 두바이 홍보 행사. /상주시

농협이 할랄한우의 중동시장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할랄불고기 간편식을 출시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식행사 및 판촉에 나섰다. 지난해 농협은 정부 등과 협력해 할랄한우의 첫 공식 수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상주축산농협과 함께 UAE에서 한우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를 지원했다.

농협은 아부다비와 두바이 소재 한국식료품 전문매장 1004 고메에서 수출용 간편식 불고기 4종의 시식·홍보를 실시했다. 또 온·오프라인 제품 판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도 만났다.

상주축산농협은 두바이 프리미엄 한식당 스모키모토에서 '명실상감한우'를 활용한 한우 코스요리를 선보였다. 이 자리엔 주UAE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최초로 할랄한우 공식 수출을 해낸 데 이어, 올해는 한우불고기 제품을 중동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현재까지의 성과에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큰 기여를 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aT 등 관계기관의 전방위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초 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시장지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송 장관은 "UAE 정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 R&D(연구·개발), K-할랄식품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랄식품 소비 인구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할랄인증 한우, 딸기·포도 등의 프리미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지원, 해외 물류인프라 확충,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할랄한우의 1호 중동 수출은 쉽게 따낸 결과물이 아니다. aT의 경우, 공사의 두바이지사가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에 착수했고 국내 도축장의 할랄 인증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최초로 횡성 소재 도축장이 UAE 정부의 할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또 같은 해 6월 두바이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는 할랄한우 런칭쇼를 개최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9월에는 도축장 최종 등록 승인을 마쳤다. 드디어 작년 10월 냉장·냉동 한우고기가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UAE행 선적을 개시하게 됐다.

민·관이 함께 3년간 쌓아 온 협력의 결과물이다.

올해 3월에는 중동 진출을 위한 다자간 MOU도 체결됐다. 농협경제지주와 aT,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횡성케이씨 간 협약이다. 이들 기관은 ▲UAE 등 수출 신규시장 개척과 소비저변 마련 ▲수출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동 마케팅 추진·홍보 등을 통한 중동지역 한우 수출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UAE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고급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민과 현지 고급 소비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한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중견기업에 1000억 지원해 '중핵기업'으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10대 핵심 기술서 세계시장 주도
산업부, 올해 말까지 과제 발굴

정부가 중견기업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획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해 기술·경제·정책 분야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미래 10대 유망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사업이다. 기존의 대표적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발전시켜, 10대 핵심 기술을 글로벌 도약의 '날개'로 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은 물론 특허·표준, 판로·인증, 해외진출 등 상용화 전 과정을 과제당 최대 5년 동안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과제는 현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과, 기존 시장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계 대상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거치며, 해커톤 방식을 도입해 기술 확보 가능성을 심층 토론·검증해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로 우선 지원되며,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 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송미령 "농지조사 우려 불식 협조해 달라"

〈농식품부 장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시 제재 대상이 아님을 재차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5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안의 경우,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의무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속 농지·관행적 임대차를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농업 현장 내 우려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수협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는 전국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군 지역 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창립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 객관성·신뢰도 높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맞손'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후 (왼쪽 세번째부터)김호곤 한전 송변전건설단장,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한국전력이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설비 주변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한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설비 건설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주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한전은 전력설비 및 전자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지역 주민 소통, 이해 증진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법정 인체보호 기준(83.3㎲T) 이내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약 1.53㎲T 수준으로, 헤어드라이기(3.8㎲T), 전자레인지(2.9㎲T), 안마기(1.94㎲T)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민간 소각시설서 열에너지 31% 미회수

공공소각 시설 대비 7.5배 많아
적극적 에너지 자원화 대책 시급

난방과 발전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열 상당수가 민간 소각시설에서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각열을 회수하는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은 31.2%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 소각시설의 미회수율(4.2%)과 비교해 약 7.5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24년 공공 소각시설은 폐기물 약 491만 톤을 소각해 발생한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활용했으며 미회수량은 42만 4831 Gcal에 그쳤다. 반면 민간 소각시설은 비슷한 수준인 약 541만 톤을 소각해 1987만 4514 Gcal의 열에너지를 발생시켰으나, 이 중 31.2%에 달하는 620만 7629 Gcal를 회수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에너지 총량만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약 15배나 많은 셈이다.

시도별 미회수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연간 620만 Gcal에 달하는 민간 미회수 열에너지는 경기(148만 7139 Gcal), 울산(128만 5988 Gcal), 전남(117만 2095 Gcal), 경북(86만 5603 Gcal), 경남(38만 3015 Gcal) 순으로 많았다. 미회수율 기준으로는 광주(71.1%), 전남(58.0%), 부산(51.0%)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 열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헌**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metro · metro경제

성적 따라 등록금 정책 효과 상이 3·4등급 '합격-비용' 선호도 교차

낮은 성적일수록 경제적 부담 영향
수도권-비수도권 수험생간 격차도
"내년 등록금 무상화, 효과 미지수"


지난달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뤄지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운데, 올해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 지원 양상이 출신 지역과 내신 성적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방국립대를 택한 비율이 높았고, 등록금 지원 정책의 영향을 꼽은 응답도 많았다. 다만 수도권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아, 등록금 정책이 수도권 쏠림 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가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 지원 이유는 내신 성적대에 따라 달랐다. 1등급대 수험생은 '내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를 꼽은 비율이 76.8%로 가장 높았고, '등록금·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26.1%였다.

낮은 성적대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4등급대 학생(55.4%)가 합격 가능성(49.9%)을 앞질렀다. 5등급 이하에서는 경제적 요인(62.6%)과 합격 가능성(44.3%)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등록금 정책이 실제 지원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도 성적대별로 달랐다. 지방국립대 지원자 2056명 중 41.8%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지원 결정이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내신 등급별로는 1등급대가 27.5%, 5등급 이하가 51.1%로 23.6%포인트(p)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를 묶은 사업으로, 지역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수도권 쏠림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7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2028학년도 1~2학년, 2029학년도 1~3학년으로 확대하고 2030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도 선발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은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한다.

다만 수도권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비율이 비수도권과 격차를 보이고 있어, 등록금 정책이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교 소재 지역별로 비수도권 6개 권역 수험생의 지원 비율은 모두 70%를 넘었고, 광주·전라가 8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인천은 39.8%, 서울은 25.6%에 그쳤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일부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방국립대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보다 수험생의 지역과 성적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 서울 하위권 대학과 지방 거점국립대 선택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쉬워진다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창구 통합
선제 알림·찜하기 등 편의성 개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가 어린이집 입소 및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유보통합포털'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협력해 기존 '아이사랑(어린이집 입소)'과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로 운영하던 신청 창구를 통합했다.

입소·입학 정보 선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 일정과 기관 검색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린다.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복지멤버십)로 수신할 수 있다.

'찜하기' 기능도 도입한다. 찜하기는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털에서 검색해 한 목록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기관별로 검색해 신청하던 절차를 개선했다.

서류 제출도 간편해진다. 신청 때마다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린이집 6종, 유치원 14종의 증빙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찜하기와 자녀 등록은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입소·입학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이다. 교육부는 신청 일정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자료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AI 평가지원시스템 보급 확대

7개 시도교육청 '채움AI' 공동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를 전국 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움AI는 답안을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교사의 채점 업무를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6개 학교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AI 채점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운영 학교를 135개교로 늘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교육청들은 채움AI를 공유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함께 개발·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부산·인천교육청과, 지난달 전북·전남광주교육청과 채움AI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AI 채점 엔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평가 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의 서·논술형 평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방식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의 평가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현판식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디지털자산시대 인재 키운다

블록체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추진
5개 기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인하대는 지난 12일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현판식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인하대와 인천대, 인천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인하대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마련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특정 분야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역량을 쌓도록 한 학습 과정으로, 학생들은 디지털자산의 구조와 금융 제도를 익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습한다.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다루는 문제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설계한다. 시제품을 개발해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하나금융TI, 한국디지털에셋(KODA), NHN KCP, 업비트, 유가랩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은 사업 분야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고려대, 20일 'AI Tech Day 2026' 개최

메타·애플 등 AI 전문가 참여

고려대학교가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의 최신 흐름을 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AI Tech Day 2026'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메타, 애플, 엔비디아 등 기업의 AI 전문가와 서울대·KAIST 교수진이 참여한다.

강연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최근 동향과 연구·산업 분야의 적용 사례를 다룬다. 연사들은 산업·연구 현장의 적용 사례와 전망도 소개할 예정이다.

ICT명품인재양성사업단과 초지능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포스터·데모 세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을 위한 기업 홍보와 채용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려대와 AWS가 공동 진행한 'AI Innovators Challenge'의 최종 프로젝트 시연 및 시상식도 열린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와 AWS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한 서비스를 공유한다. /김수정 기자

숭실대, 개교 1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

오정현·이윤재·홍덕천 공동위원장

개교 130주년을 앞둔 숭실대학교가 기념사업을 이끌 조직을 꾸렸다.

숭실대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공학관에서 개교 1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관계자 등 교내외 인사 약 80명이 참석했다.

숭실대는 내년 개교 130주년을 맞아 'Way Maker Soongsil… 미래를 잇고, 사람을 품다'를 슬로건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오정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과 이윤재 총장, 홍덕천 총동문회장 직무대행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숭실대 관계자는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 도약의 방향을 공유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기념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은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 원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차세대콘텐츠·방송영상융합'과 '미디어전략·데이터커뮤니케이션' 등 2개 전공이다.

'차세대콘텐츠·방송영상융합전공'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AI 콘텐츠·저널리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에 관한 이론·실무 교육 등을 진행한다.

'미디어전략·데이터커뮤니케이션전공'은 마케팅과 편성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등으로,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김장도 간편함이 대세… 실속·프리미엄으로 '손님맞이'

유통가, 절임배추·포장김치 다양화
직접 김장 줄고 완제품 구매 늘어

이마트·롯데마트, 예약 물량 늘려
배민B마트, 해남 절임배추 판매
컬리, 포장김치 거래액 35% 증가
현대百, 명인명촌 김치로 고급화



지난해 11월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2025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김장체험행사 2일차, 절임배추에 김치 양념이 맛있게 버무려지고 있는 모습. /임실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절임배추와 포장김치 판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절임배추 사전예약 물량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와 백화점은 소용량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포장김치 상품군을 강화하며 김장 수요 잡기에 나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상품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은 62.3%로 전년(64.5%)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품김치 구매 비율은 29.5%에서 32.5%로 3.0%p 상승했다. 직접 담그는 비율과 구매 비율의 격차도 35.0%p에서 29.8%p로 좁혀졌다.

직접 김장을 하는 소비자 사이에서는 번거로운 절임 과정을 생략하려는 수요가 높다. 조사에서 김장용 배추를 절임배추 형태로 구매하는 비율은 58.9%로 신선배추(38.7%)보다 높았다.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절임 과정의 번거로움(55.8%)과 시간 절약(32.5%)이 주로 꼽혔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절임배추 사전예약 물량을 확대하며 김장 수요 확보에 나섰다.

이마트는 28일까지 이마트 앱의 사전예약 서비스 '오더픽'을 통해 절임배추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일반 절임배추 20kg 상품의 준비 물량은 지난해 6만 박스에서 올해 7만5000박스로 25% 확대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황금절임배추도 물량을 50% 늘려 1만5000박스를 준비했다. 절임배추뿐 아니라 김치양념과 절임알타리, 절임채소와 양념을 함께 구성한 김장 키트도 선보인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도 이달 초부터 절임배추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올해 절임배추 준비 물량은 전년보다 20% 늘렸다.

소규모 가구를 위한 간편 상품도 확대했다. 롯데마트는 절임배추 5kg과 김치양념 1.5kg을 묶은 '해남 절임배추 간편 KIT'를 선보였다. 별도로 배추를 절이거나 양념을 준비하지 않아도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배달의민족도 절임배추 예약 판매에 뛰어들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4일부터 배민B마트를 통해 해남 절임배추 5kg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14일과 21일 중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배송받을 수 있다.

직접 김장을 하는 대신 완제품 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 7~9월 포장김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용량별로는 100g~1kg대 소용량 제품의 거래액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컬리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량의 김치를 간편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 브랜드 김치 판매도 늘었다. 컬리가 CJ제일제당과 공동 개발한 '제일맞게 컬리' 포기김치와 총각김치의 올해 9월 거래액은 출시 당시인 지난해 9월보다 56% 증가했다. 컬리스의 '시원한 배추김치' 거래액도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백화점업계는 프리미엄 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3일 압구정본점 식품관에서 자체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의 김치 제품을 출시했다. 배추김치와 열무김치 등 일상김치 10종과 지역 특색을 살린 별미김치 2종으로 구성했다.

명인명촌 김치는 전국 각지 장인들이 생산한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등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19.3% 증가한 122만2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마늘과 새우젓 등 일부 부재료 가격이 높은 데다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배추와 무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고궁 투어로 K-푸드 체험 확대

외국인 6000명에 비비고 제품 제공
김부각·약과 선봬 브랜드 접점 확대

CJ제일제당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K-푸드 경험을 넓히고,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CJ제일제당은 한국역사해설진흥원의 고궁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 6000명을 대상으로 '비비고 웰컴키트'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비영리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을 통한 기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웰컴키트에는 비비고 찹쌀 김부각과 오마이갓 미니 약과, 컵떡볶이 등 제품이 담겼다. 별도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상온 제품 가운데 영문 표기가 적용된 제품을 선정했다. 제품 구매처를 안내하는 메시지카드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과 올리브영N 성수 매장을 안내해 현지에서 경험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비고 웰컴키트 패키지. /CJ제일제당

고궁 투어는 청소년 문화해설사들이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CJ제일제당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비고 제품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비고 제품을 통해 K-푸드의 다양한 맛과 매력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비비고 브랜드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온스타일, 글로벌몰 열고 해외시장 공략

미국·홍콩·싱가포르서 서비스 개시

CJ온스타일이 셀럽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CJ온스타일은 K-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글로벌몰(global.cjonstyle.com)을 공식 오픈하고 글로벌 콘텐츠 커머스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홍콩·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내 프랑스·일본·대만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몰은 ▲뷰티 ▲웰니스 ▲패션 ▲K팝 ▲셀렙샵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한국의 상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글로벌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은 셀럽과 크리에이터들이 실제 사용하는 제품과 관리법, 취향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국내에서 영상 콘텐츠와 상품 구매를 연결하는 콘텐츠 커머스 모델을 운영하며 관련 역량을 축적해왔다. 지난해 글로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국가의 플랫폼·유통 파트너와 협업하며 해외 진출을 준비해왔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몰 오픈을 시작으로 축적한 콘텐츠 커머스 노하우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해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을 넘어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12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 '르 끌레르'와 협업해 K-라이프스타일 숍인숍 매장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해태제과, 수능 응원 '만루홈런볼' 선봬

초코크림 함량 10% 늘려 풍미 강화
전국 고교 대상 합격 응원전 진행

해태제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응원을 위한 한정판 과자를 선보인다. 초코크림을 기존 제품보다 10% 늘린 제품과 합격 기원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응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태제과는 수능 시즌 한정판 '만루홈런볼'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홈런볼의 수능 응원 에디션은 올해로 세 번째다. 2024년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용량 제품을 출시했다.

올해 제품은 기존 홈런볼보다 초코크림 함량을 10% 늘린 것이 특징이다. 겉을 감싸는 슈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더 풍성하게 채워 초코의 풍미를 강화했다.

합격 기원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만루홈런볼 128g 제품 6봉으로 구성했으며, 즉석 당첨 쿠폰을 통해 홈런볼 초코 1박스(100명)와 커피 음료 교환권(200명)을 증정한다. 해당 선물세트는 오는 28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만개 한정으로 판매된다.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6 홈런볼배 전국 고교수능응원전'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학부모와 동문, 재학생 등이 해태제과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학교 이름과 응원 글, 필수 해시태그를 남기고 친구를 태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중간 순위는 15일과 22일 공개하며, 최종 상위 3개 학교에는 수능 전 전교생이 하나씩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루홈런볼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GS25, 화가 점주 작품 담아 저작권료 전액 기부로 나눔

GS25 가맹 경영주가 그린 그림이 컵홀더로 거듭났다. GS25가 15일부터 가맹 경영주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원 작가 작품을 디자인에 적용한 한정판 카페25 컵홀더를 선보인다. 최종원 작가는 경기도 양평에서 4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NS를 통해 '낮에는 편의점 점장, 밤에는 화가'로 살아가는 일상이 화제를 모았으며,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GS25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일상과 꿈을 응원한다'는 자체 커피브랜드 '카페25'의 철학을 전하는 'For Dreamers' 프로젝트를 새롭게 전개한다. 앞으로 고객과 가맹 경영주 등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과 협업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더현대 서울, 외국인 짐 공항·호텔로 배송

굿럭컴퍼니 협업해 당일 배송 지원
캐리어·쇼핑백 접수 실시간 조회 가능

더현대 서울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여행 가방(러기지)을 공항이나 호텔로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러기지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여행 물류 스타트업 굿럭컴퍼니와 협업했다.

서비스 신청은 더현대 서울 1층 투어리스트 데스크에서 가능하다. 데스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굿럭컴퍼니 앱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캐리어나 쇼핑백 배송을 접수하면 된다. 앱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한다.

배송지는 인천·김포국제공항의 굿럭컴퍼니 보관 센터와 현장 수령이 가능한 전국 모든 호텔의 1층 로비다. 배송 지역이 서울인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맡기면 당일 오후 7시까지 배송된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접수한 건은 당일 오후 10시까지 전달된다. 서울 외 지역은 낮 12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오후 10시까지 배송된다.



더현대 서울 1층 투어리스트 데스크에서 직원이 '러기지 딜리버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이용 요금은 캐리어 크기에 따라 2만4500원부터 시작한다. 서울 외 지역은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쇼핑백 배송은 서울 지역에 한해 크기와 상관없이 건당 1만 6900원이다. /김서현 기자

오가노이드로 의학·식품 융합… 지역 딛고 세계적 거점 도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원광대학교 전북도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
W.I.T.H.밸리, R-G.B 연구소 2주년
지·산·학·병·연 협력 성과 점검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레드-그린 융합 바이오 심포지엄 2026: 전북특별자치도 지·산·학·병·연 협력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원광대학교가 인간과 동물을 융합한 바이오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지·산·학·병·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원광대학교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글로벌 레드-그린 융합 바이오 심포지엄 2026: 전북특별자치도 지·산·학·병·연 협력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원광대학교 글로컬사업(W.I.T.H.밸리) 2주년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 개소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지·산·학·병·연 협력 모델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원광대학교가 가진 역량을 만나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미 공동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원광대학교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우수한 인재들의 육성도 본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국내 오가노이드 분야 선두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원광대학교의 협력은 지·산·학·병·연의 혁신과 상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한다면 더 큰 도약과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기능성 식품, 신경과학 등 현장 중심의 융합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구축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동물·감염병 ▲식품 ▲신경과학 ▲생식 등 4개 분야, 총 5개 학술 세션으로 구성되어 오가노이드 기술을 축으로 레드바이오(의료·헬스케어)와 그린바이오(농업·식품)를 잇는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다뤘다.

김우순 원광대학교 W.I.T.H.밸리혁신본부장은 W.I.T.H.밸리의 지난 2주년 성과를, 배동혁 R-G.B 연구소 부소장은 연구소의 2주년 발자취를 공유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단장('Organoid Zoo'), 장구 서울대학교 교수('동물 줄기세포의 현황과 미래'), 배동혁 R-G.B 연구소 부소장('바이러스 감염 모델로서 오가노이드 활용') 등이 연사로 나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은혜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AFI) 대표의 비동물실험 관련 발표와 김세종 익산시청 축산과 계장의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소개 등 산업 및 정책적 관점의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교육부의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글로컬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지·산·학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4년 10월 원광대학교에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를 열었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 내 연구개발(R&D) 센터에 입주한 첫 기업이다.

R-G.B 연구소는 인간의 질병 극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레드 바이오'와 식물, 동물은 물론 지구 전체 생태계를 위한 '그린 바이오'를 아우르는 사람과 동물, 지구를 위한 바이오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다.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세계 무대서 '램시마SC' 입증

오는 17~20일 유럽 소화기학회 참가
200㎡ 단독 부스, 심포지엄 등 운영
램시마 전 제형 라인업으로 차별화

셀트리온은 오는 17~2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6 유럽 소화기학회(UEG Week)'에 참가해 글로벌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를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IBD) 제품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UEG Week는 유럽을 대표하는 소화기 분야 학술대회로,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소화기 질환 전반의 최신 임상 연구와 치료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약 115개국에서 1만 2100명 이상의 의료 관계자가 참석했고 올해도 글로벌 전역에서 소화기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회에서 200㎡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학회장 내에서는 글로벌 IBD 석학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전문가 세션(MTE)도 개최해 램시마SC의 장기 임상 근거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차별화된 제품 가치를 조명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램시마 정맥주사(IV)·피하주사(SC) 제형에 더해, 올해 초 유럽에 출시한 램시마 IV 액상제형까지 포함한 전체 램시마 제형 라인업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키마', '유플라이마' 등 폭넓은 IBD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의 학술 활동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은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램시마 제품군(IV·SC)은 유럽에서 약 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로서 공고한 입지를 증명했다. 유플라이마 역시 24%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는 등 후속 제품군 성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 하태훈 유럽본부장은 "이번 UEG Week에서는 글로벌 의료진을 대상으로 램시마SC를 비롯한 셀트리온 IBD 치료제의 가치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여러 임상 데이터와 실제 환자 처방 경험 등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다양한 치료 옵션, 직판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IBD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오스템파마, 북아프리카에 'K-덴탈' 전파

'2026 뷰티월드 중동' 참가

오스템파마가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며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중장기 성장에 속도를 낸다.

오스템파마는 지난 6~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뷰티월드 중동'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뷰티월드 두바이는 미용 분야 세계 4대 전시회이자 메나 지역 최대 규모의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올해는 전 세계 56개 국가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6만 3000여 명의 참관객이 몰렸다.

오스템파마는 지난 2017~2025년 기준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기록한 대표 제품 '뷰센'을 알렸다. 고함량 불소 치약 '뷰센C', 치약형 치아미백제 '뷰센28', 캡슐형 구취제거제 '오스템 민트볼 D' 등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치과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180여 개 바이어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 국가 진출 기반을 다졌다. 현지 주요 헬스앤뷰티 매장, 대형 유통 채널, 이커머스 입점 등을 추진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수출을 넓힐 계획이다.

오스템파마 관계자는 "뷰센은 품질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능성을 앞세워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41개 국가에서 해외 수출국을 지속 추가해 글로벌에서 K덴탈케어 입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바사-더웨이헬스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협력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맞손'

CJ바이오사이언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더웨이헬스케어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및 유통, 임상·CRO,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CJ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독자 균주(CJRB-101, CJRB-402)를 활용해 장 건강 및 호흡기 건강을 케어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제품은 더웨이헬스케어의 제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며, 향후 항암 치료 환자 관리 등 전문 유통 채널로의 확장을 검토한다. 장 건강 제품을 시작으로 호흡기 건강 기능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거쳐 복합 기능성 라인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왼쪽부터)더웨이헬스케어 이정우 대표, CJ바이오사이언스 윤상배 대표, 더웨이헬스케어 최창민 대표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상 및 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더웨이헬스케어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IIT) 역량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섭취에 따른 장 건강 개선 효과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기존 파이프라인 상품화 진행 시 더웨이헬스케어의 임상·CRO 역량을 우선 활용하고, 건강데이터 관리시스템(HDMS) 구축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협력도 병행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장내 미생물 분석 및 미생물용 탄수화물(MAC) 섭취 관리를 돕는 장 건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암 환자의 장 건강 관리 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선진, 돼지고기 구이 문화 전문성 강화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 진행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돼지고기 품질과 조리법을 함께 이해하는 식육 전문 인력 양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육의 생산·가공 특성부터 실제 굽는 기술까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구이 문화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선진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약산돼지'에서 '제19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진 식육문화연구원이 운영하는 이 시험은 전국 예비 창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이론 지식과 그릴링 역량을 평가한다.

그릴링마이스터는 고기의 생산·가공·품질 특성을 이해하고 조리 기법을 활용해 육류를 조리하는 전문 역량을 검증하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필기시험에서는 돼지고기의 문화와 역사, 생산·가공, 관능·영양학적 품질 요소, 구이 조리 기능 등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선진포크한돈을 활용해 원육 특성에 맞게 고기를 굽는 능력을 살핀다.


선진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약산돼지에서 '제19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진행했다. /선진

선진은 2021년 자격시험을 시작한 이후 이번까지 총 19회 운영했다. 지난 18회까지 누적 393명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 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홍보대사
탁재훈

홍보대사
김나희

※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LG전자, 뉴욕·런던 등 세계 곳곳에 '희망의 한 끼' 전한다

전광판에 기아 퇴치 캠페인 영상 상영
인니 취약계층에게 식사·검진 지원도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옥외전광판에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FAO)가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글로벌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위치한 옥외전광판에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작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은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송출된다.

이번 영상에는 세계 각지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영양(Innovate Today, Nourish Tomorrow)'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캠페인은 LG전자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LG 희망스크린'의 일환이다. LG 희망스크린은 뉴욕과 런던의 LG전자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공익 영상을 상영하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다.

LG전자는 해외 사업장이 위치한 주요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초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자바주 파시르랑구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지역 보건센터와 협력해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상태 점검과 건강검진도 지원했다.

인도에서는 청소년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해 16개 주 공립학교 학생 12만명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라이프스쿳 영양식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라크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기부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메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식당에서 반찬 수를 간소화한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후원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부식 지원 등 봉사활동에 활용된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공익 캠페인 확산,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기아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C현산, 어르신 복지 위해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양천구 어르신들의 교류와 복지 지원을 위한 바자회에 힘을 보탰다.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은 15일 서울 양천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승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왼쪽 두번째),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사업소장(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삼표시멘트, 삼척시민과 함께한 화합의 장

삼표시멘트가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 함께하며 지역 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도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에서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이 이벤트 부스를 찾은 시민들과 함께 룰렛 돌리기, 경품 뽑기, OX 퀴즈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현대제철 이보룡 사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례행사에서 세계철강협회 타차트 비스바나 나렌드란 부회장으로부터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 LCA(Life Cycle Assessment) 부문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고 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스틸리 어워드 첫 수상

전과정평가 부문 최우수 기업 선정
인하대학교와 3년간 공동 연구

현대제철이 철강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산정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철강업계에서 평가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연례행사에서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 전과정평가(LCA)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스틸리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틸리 어워드는 세계철강협회가 매년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청정철강 생산, 공정 및 제품 혁신, 지속가능경영, LCA, 인재개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 6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LCA 부문은 환경영향 산정 방법의 표준화와 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적용 성과를 평가한다. 현대제철은 '철강제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LCA 산정 지침 표준화'를 제출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제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산정 기준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부생가스의 환경영향 편차를 최소화하는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2023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24개 이상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중기중앙회, 베트남 동나이市와 협약

중소기업 현지 진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베트남 동나이와 손을 잡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기중앙회는 15일 베트남 동나이시와 중소기업 협력 및 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시장동향, 정책·법률 등 정보 교류 ▲중소기업 진출 및 사업 확대 지원 ▲혁신 및 기술이전·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 및 경제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나이는 지난 4월 30일 기존 동나이성 전체를 기반으로 출범한 베트남의 7번째 중앙직할시로, 경제수도인 호치민시와 인접하고 12월 개항예정인 롱탄 국제공항 등 대형 인프라를 갖춰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기중앙회는 협약을 계기로 동나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동반위, 디지털 기술로 시장 화재 대응

지난 14일 대전서부소방서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및 영세가맹점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왼쪽부터)토버 김풍민 대표, 동반위 곽재욱 운영처장, 도마큰시장 백승재 상인회장, 상생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대전서부소방서 김옥선 서장, 이영규 소방행정과장, 김종삼 재난대응과장, 고택훈 현장대응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애경산업, 시각장애인 생활용품 지원

'흰지팡이날' 맞아 사회공헌 활동

애경산업이 시각장애인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선다.

애경산업은 10월 15일 '흰지팡이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해 시각장애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 친화 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구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스타벅스, 겨울 e-프리퀀시 시작

스타벅스 코리아가 겨울 e-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한다.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의 포터블 스피커와 몰스킨 협업 플래너 등을 증정하고,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2026 겨울 e-프리퀀시 증정품.

/스타벅스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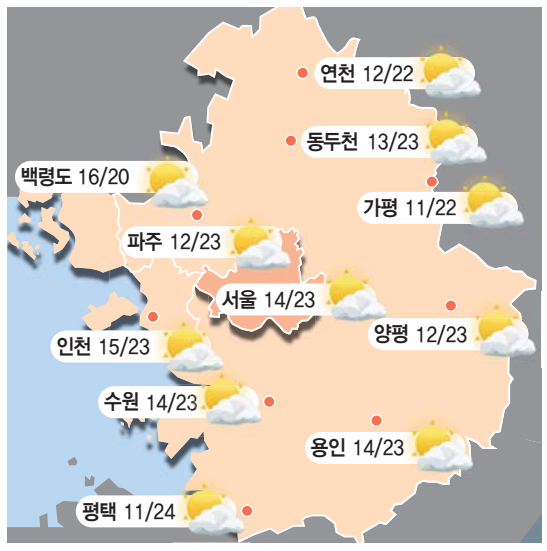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1 | 해짐 / 17:54

10월 16일 (金)
음력 : 9월 6일

수도권 날씨
14~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직 발령 △부원장 최태훈 ◇연구소장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장 이호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부원장 최기용 ◇본부장급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이영준 △경영기획본부장 이영철 ◆기상청 ◇4급 전보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예숙

부 음 ▲정태분씨 별세, 유준하(동화약품 대표이사)씨 모친상= 14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발인 17일 오전 6시, 02-6986-4440.

▲유태환씨 별세, 유정철(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광고상품팀 프로)씨 부친상 = 14일, 전남광주 VIP 장례타운 VIP 302호(전남광주 서구 풍서좌로 237), 발인 16일 오전 11시30분. 062-521-4444.

▲신순녀(향년 95세)씨 별세, 박광재(세계일보 편집위원)·박정재·박금선·박옥선·박명옥씨 모친상 = 15일 오전 5시,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양평 선영. 02-2684-4444.

▲송정인씨 별세, 김형진(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씨 모친상 = 15일,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특1호,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전주 모악추모관. 063-250-4444.

▲이충열(향년 98세)씨 별세, 이기만(전 재정경제부 국장)·이기철(전 재외동포청장)·이기준(전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장)씨 부친상, 김애경·문수미씨 시부상, 이경은·이지윤·이대현·이태현씨 조부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02-2258-5940.

오설록

차의 풍미 살린 미식 선봬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차(茶) 브랜드 오설록이 미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브랜드 행사를 운영한다.

오설록은 차의 풍미에 요리 재료를 더해 일상에서 차를 미식 문화로 즐기는 '차, 미식의 발견'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설록 대표 블렌디드 티인 삼다 꿀배 티, 제주 삼다 영귤 티, 제주 동백꽃 티 등 4종을 활용한다.

/이청하 기자

선택과목이 당락을 가른다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정착은 한국 고교 교육과 대입 전형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과거의 대입 전략이 단순히 높은 내신과 수능 등급을 받는 것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여 학문적 역량을 다졌는가를 입증하는 과정 중심 변혁이 진행 중이다. 중심에는 대학 입학처가 직접 제시하는 전공 연계 권장과목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별 전공선택 가이드북과 대교협 발표 자료는 대학 입학 후 전공 학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고교 단계에서 갖춰야 할 학문적 기초 가이드라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교과 이수 현황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요소로만 활용되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필두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됨에 따라 권장과목 이수 여부는 수시와 정시를 관통하는 핵심 합불 요소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 주요 22개 대학 중 계열·모집단위별 이수 권장과목 기준을 밝힌 곳은 17개교다. 5개교는 영역 중심의 자율 탐구를 안내한다. 각 대학이 사용하는 용어와 평가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경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등은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을 이원화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권장과목 단일 체계를 운용 중이다. 건국대는 이수추천과목, 인하대는 우선권장 교과영역, 숙명여대는 선택교과맵 형태로 안내한다.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등은 주로 이공계열 중심으로 과목을 권장한 반면,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등은 인문·사회계열까지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가이드북 분석 결과 이공·의약계열은 특정 수학과 과학 과목 이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영역 전반의 균형 잡힌 학업 성취를 기대한다. 의약계열 13개 대학 자료에서는 미적분2, 화학, 생명과학이 최다 언급되었으며,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등 심화 진로선택 과목을 명시한 대학도 7곳에 이른다. 컴퓨터·AI 계열은 수학(미적분2, 기하) 비중이 높고, 전자·반도체 계열은 물리학, 기계 계열은 물리학과 기하, 화학·신소재 계열은 화학과 물리학의 동시 이수를 강조한다.

수험생은 2022 개정 교육과정하의 수학 교과 편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공통수학 1·2를 바탕으로 일반선택(대수, 미적분1, 확률과통계)과 진로선택(미적분2, 기하)이 편성되므로 대학이 권장하는 미적분2나 기하는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편제표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경영·경제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1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율 이수를 권장한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권장과목 미이수가 곧바로 지원 불가능이나 정량적 자동 감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학은 평가 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함께 검토하여, 성적 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피했는지 여건상 들을 수 없었는지 구별해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권장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심화된 탐구 역량을 보여준 수험생이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나아가 정시모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처럼 정성평가로 반영하거나 경희대처럼 가·감점을 부여하는 정량적 방식을 취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권장과목은 필수 전략 요소가 되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 계열에 맞춘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요 과목 이수 계획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둘째, 재학 중인 학교에 특정 과목이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주문형 강좌 등을 활용해 능동적 학업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단순 수강에 그치지 않고 탐구 보고서, 발표 등 수업 내 활동을 전공과 연계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넷째, 정시만을 노리고 쉬운 과목만 선택하기보다 수능 대비와 대학별 권장과목 이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진정성 있게 과목을 선택하고 탐구하는 수험생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편의점 진열대에서 시작한 지역 관광



기자 수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편의점에서 김천의 김밥을 사고, 춘천의 닭갈비와 안동의 찜닭을 맛보는 시대다. 지역 축제와 맛집에서 출발한 음식이 전국 매장에 등장하면서 유통업계의 '로코노미(Local+Economy)'가 새로운 소비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단순한 신제품 경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지역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의 출발점은 반드시 유명 관광지나 대규모 홍보 캠페인일 필요가 없다. 우연히 맛본 음식이 궁금증을 낳고, 그 음식이 탄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유통기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돌아갈 실질적인 이익도 기대된다. 전국 소비자와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자의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현지 시장이나 상점 방문으로 이어진다면 관광과 소비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 이름을 상품에 붙이는 것만으로 상생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상품 판매가 지역 생산자와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축제와 관광지, 현지 판매처를 함께 소개하는 등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연결고리도 필요하다.

로코노미의 가치는 지역의 이야기를 전국에 전하는 데 있다. 유통기업의 판로와 홍보 역량이 지역 관광·상권과 맞물린다면 작은 상품 하나가 지역 방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유통업계의 상생이 매장 안의 판매 실적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도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한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이 터집니다. **60년생** 사고 위험이 있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72년생**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84년생**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49년생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어렵습니다. **61년생** 리더쉽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73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5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50년생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62년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정신적 여유를 위해 돈 쓸 때도 필요합니다. **86년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보다는 베푸는 게 좋습니다.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훤하고 마음도 훤합니다.

58년생 인연운이 있으니 낯선 이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70년생** 변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2년생** 작은 이익을 양보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9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59년생 주위의 말보다는 소신을 지키세요. **71년생** 주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자신감이 충만하니 기운도 충만합니다. **95년생** 주위의 시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명절 차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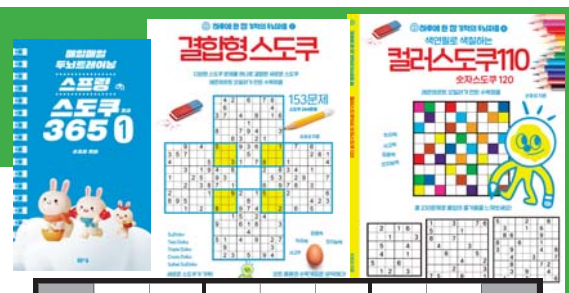
명절 차례상은 조상님께 한 해의 시작을 맞으면서, 봄과 여름을 거쳐 가을에 추수하는 결실을 감사하며 조상님들께 올리는 정성의 표현이다.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가족과 친척 등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전통이 되어 왔다. 명절이 부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괜히 명절이 아니다. 핵가족 시대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부모님들이 생존해계신 가정에서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명절이다. 전통적인 명절 차례상 차림만큼은 아니더라도 간소화 차림 등으로 각 지방적 특성이나 집안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명절 상차림은 부담스러워도 즐겁게 받아들여지곤 한다.

차례상은 보통 5열 배치법이라 하여 1열에는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식사 대용으로 올리며 2열은 육전이나 육적 같은 고기류와 어전이나 어적 같은 생선류를 놓는데, 이를 어동육서(魚東肉西)를 따른다고 하며 생선을 둘 때도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고 꼬리는 당연히 서쪽을 향하게 하니 두동미서(頭東尾西)를 적용한다. 3열은 지방의 특색에 따라 육탕, 소탕, 어탕 등 탕류를 올리며 4열은 포는 서쪽, 식혜는 동쪽으로 두니 좌포우혜(左脯右醯)라 하며, 가운데에는 나물을 놓는다. 5열은 후식이니 조율이시로서 대추·밤·배·감 순으로 놓고 그 밖에 홍동백서라 하여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으로 과일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의 월광사에서는 전통적인 차례상 차림으로 계속 합동 차례를 지내온다. 성균관에서도 간소화 차례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도 최소 서너 가지를 만들기도 하였기에 어동육서라 하더라도 가짓수가 상당하여 상이 가득하다 못해 난감할 적이 적지 않았다. 정형화된 차례상 음식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류나 디저트류를 놓아도 무방하리라 싶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칸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2	4	6
			7					
5		8		7				
		4	6		5	1		
				8		9		3
					3			
1	9	2				4		

	7	1		5	9	4	8	6
	9		6					
						7		
9								8
		3						
					5		1	
3	2	7	1	8		6	9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3개의 포토밭이 그려낸 소노마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4



쓰리스틱스의 수출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맷슨이 와이너리의 역사와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쓰리스틱스 듀렐 빈야드 샤도네이 2024, 갭스 크라운 빈야드 샤도네이 2024, 갭스 크라운 빈야드 피노누아 2024, 프라이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피노누아 2023. /안상미 기자

시작은 투자였다. 포도밭을 사들여 정상급 와이너리에 포도를 공급해 명성을 날리면 더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인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이 좋은 포도로 개성을 충분히 살린 와인을 만들고 싶더란 말이다. 운영하던 사모펀드 지분을 아예 정리하고는 와이너리를 세우고 포도밭을 더 사들였다. 이제는 소노마를 대표하는 샤도네이, 피노누아 와이너리 '쓰리스틱스(Three Sticks)'의 설립자 빌 프라이스(Bill Price III)의 얘기다.

쓰리스틱스의 수출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맷슨(Christopher Mattson·사진)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와이너리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쓰리스틱스는 양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테루아와 포도밭 자체에 무게중심을 더 크게 둔다"며 "듀렐 빈야드를 시작으로 2012년 말에는 소노마의 그랑크뤼로 여겨지는 갭스 크라운 빈야드, 마지막으로 왈랄라 빈야드로 포도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빌 프라이스가 듀렐 포도밭을 사들인게 1998년인데 와이너리 쓰리스틱스가 설립된 것은 2002년이 되어서다. 와이너리 이름은 포도 나뭇가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빌의 별명에서 비롯됐다. 빌 프라이스 3세(Ⅲ)에서 마지막 로마 숫자 때문에 어린 시절 '빌 쓰리스틱스'라고 불렸던 것에서 따왔다.

2023 빈티지부터는 쓰리스틱스의 모든 와인은 100% 소유한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만든다. 포도밭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토양과 기후, 포도나무의 상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재배와 수확, 양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쓰리스틱스가 포도밭 만큼이나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포도를 재배할 지부터 시작해 어떻게 양조할 지 등 모든 물음에 답하는 주체"라며 "특히나 부르고뉴는 오랜 양조 경험으로 기후나 토양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역사가 길지 않았던 소노마는 와인메이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쓰리스틱스 역시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밥 카브랄를 만나 한 단계 성장했고, 지금은 라이언 프리처드가 양조팀을 이끌고 있다.

쓰리스틱스를 있게한 듀렐 빈야드부터 시작한다. 지도에서 보듯 소노마의 남부 지역에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원산지 표시 명칭(AVA)으로 보면 소노마 밸리와 소노마 코스트, 카네로스에 걸쳐 있어 소노마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다. 듀렐 빈야드 와인이 소노마의 풍경을 한 잔에 담아낸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다.

낮엔 따뜻하지만 안개가 짙고, 오후엔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포도알을 식혀 천천히 익게 한다. 땅은 돌이 많은 화산토양이다.

갭스 크라운 빈야드는 소노마 마운틴의 서쪽 경사면에 자리잡은 곳이다. 기후 자체로는 듀렐과 같이 서늘한 해양성이지만 더 강한 바람과 함께 안개가 끊임없이 몰아친다. 그래서 토양보다는 기후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와인으로 만든다.

와인은 좀 더 가벼운 '갭스 크라운 빈야드 샤도네이 2024'부터 맛봐야 한다. 레몬, 청사과 같은 과실과 함께 고소한 아몬드 뉘앙스가 따라온다. 생동감 있는 산도와 짤쫄함이 마치 샤블리를 연상시킨다. 갭스 크라운이 감귤 계열의 향이 먼저라면 '듀렐 빈야드 샤도네이 2024'는 잘 익은 노란 사과풍이다. 토스트향 등 오크 숙성 느낌과 함께 산도도 좀 더 둥글다. 그래서 음식 페어링도 갭스 크라운 샤도네이가 산뜻하게 회나 구운 생선이라면 듀렐 빈야드 샤도네이는 치킨 등 흰살 육류나 크림소스 요리와 잘 어울린다.

'갭스 크라운 빈야드 피노누아 2024'는 서늘한 기후가 그대로 선명한 산도로 표현됐고, 민트 등 허브향도 인상적이다.

'프라이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피노누아 2023'는 듀렐 빈야드를 중심으로 6개 포도밭의 개성을 담아냈다.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흙내음까지 이어진다. 아직 숙성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을 질감의 타닌과 함께 산도도 균형감을 잘 맞췄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관객이 직접 결말 만든다… 롯데컬처웍스, '카지노X' 개막

내달 20일 명동 롯데시네마서 공연
영화관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마련

롯데컬처웍스가 관객 참여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몰입형 공연 '인사이드 더 플레이 : 카지노X'를 선보인다.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관객을 극 전개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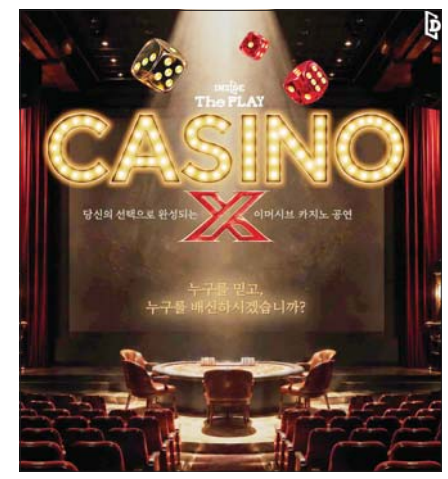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11월 20일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인사이드 더 플레이 : 카지노X'를 개막한다고 15일 밝혔다. 티켓 예매는 오는 30일 티켓링크와 놀티켓에서 시작하며 얼리버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작품은 1조원 규모의 '매트릭스 카지노' 주주총회를 배경으로 권력 다툼과 배신을 그린다. 카지노 딜러 '혁' 역에는 김동현(그리), 노태현, 유권이 출연하며 '철' 역은 방태훈이 맡는다.

관객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멀티엔딩 구조가 특징이다. 관객은 공연에 참여하는 카지노 플레이어이자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 극에 참여한다. 프리쇼 관람 여부와 서사 참여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티켓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연은 영화관 로비와 라운지, 상영관을 활용해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롯데컬처웍스의 체험형 공연 시리즈 '인사이드 더 플레이'의 다섯 번째 작품이다. 기존 '카지노'를 확장한 버전으로 원작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26회 공연됐다.

윤세인 롯데컬처웍스 라이브사업부문장은 "수년간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원작 공연의 서사를 멀티플렉스 공간에 최적화해 더욱 입체적인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한 프로젝트"라며 "낮에는 영화를 관람하던 공간이 밤이 되면 카지노 주주총회장으로 변모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컬처웍스_인사이드 더 플레이 카지노X /롯데컬처웍스

10년 전 그 영화 다시 본다… CGV, 관객 투표로 재상영

'동주'·'캐롤' 등 2016년 영화 7편 후보
19일 최다 득표작 발표·27일 상영 예정

CGV가 개봉 10주년을 맞은 2016년 영화 7편을 후보로 선정하고 관객 투표를 통해 재상영 작품을 정한다.

CGV는 고객 참여형 상영 프로그램 'COD-7(CGV ON DEMAND)'의 10월 테마와 후보작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테마는 '아니 벌써 10년 됐다고?'로, 후보작은 '4등', '나의 산티아고', '동주', '우리들', '최악의 하루', '캐롤', '헤이트풀8' 등 7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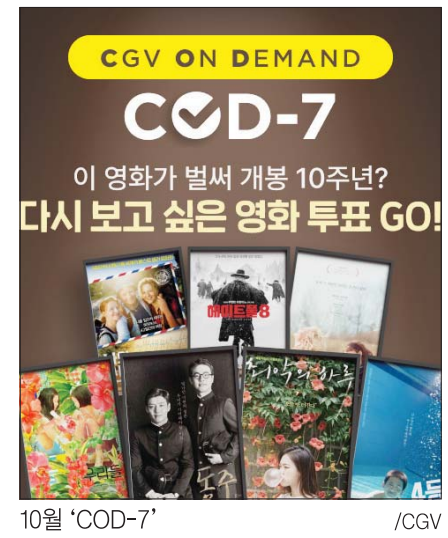
투표는 15일 오전 9시부터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최다 득표작은 19일 오후 2시 공개되며, 같은 시각 예매가 시작된다.

CGV는 실제 예매 수요를 바탕으로 23일 낮 12시 최종 상영 여부를 확정하고, 상영이 결정된 작품은 27일 오후 7시 상영할 예정이다.

COD-7은 관객 투표로 상영 후보작을 선정한 뒤 실제 예매 수요에 따라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테마에 맞춰 7편의 후보작을 공개하고, 투표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지난 9월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를 주제로 처음 진행한 COD-7에는 약 2만 4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상영이 진행된 10개 극장 모두 상영이 확정됐다.

장지연 CJ CGV 콘텐츠운영팀장은 "10월에는 개봉 10주년을 맞은 2016년 작품 가운데 관객들이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를 마련했다"며 "COD-7을 통해 관객이 원하는 다양한 작품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10월 'COD-7' /CGV

메트로 한줄뉴스



▲30년 공화 텃밭 텍사스 초접전… 민주, 상원·주지사 등 6곳 중 5곳 근소 우위 /사진 뉴시스

▲AI 규제 진영, 美선거에 4800만달러… 산업계 '빅머니'에 맞대응

▲러, 日과 영토분쟁 지역서 '폭격훈련' 통보… 日 항의

▲트럼프 지지율 36%로 재임 중 최저… 물가·이란 전쟁에 민심 악화

▲푸틴 감싼 트럼프, 젤렌스키엔 "물러나라"… 선거 3주 앞 공화당 속 탄다

▲북중 신압록강대교 정식 개통… 中리창 "양국 관계 새 단계 진입"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6014호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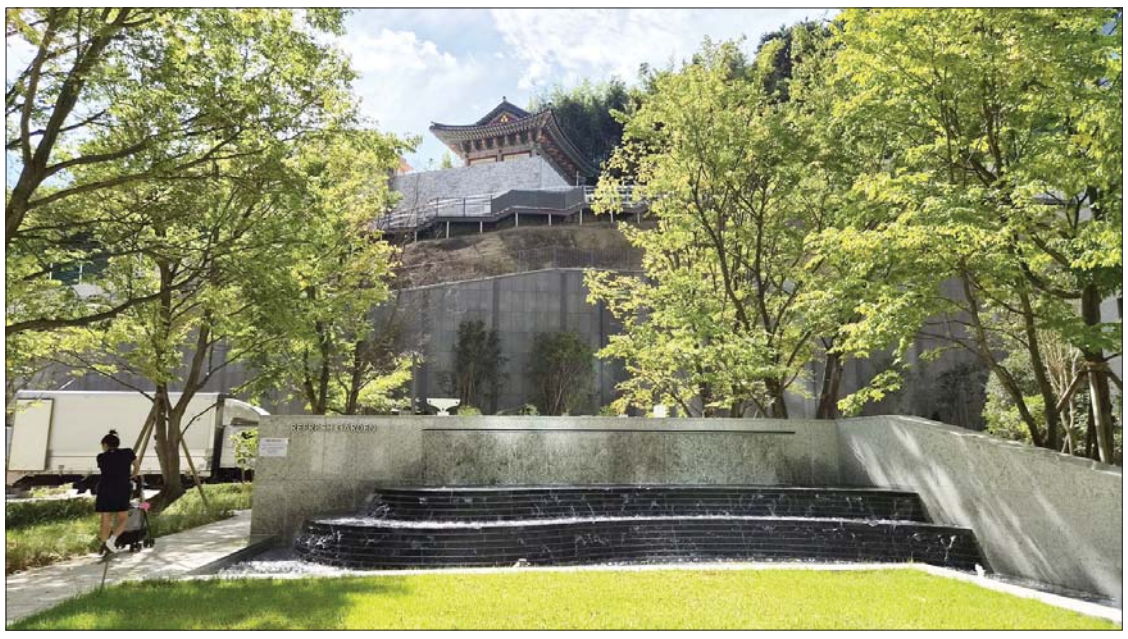


김장도 간편하게
실속·프리미엄으로
손님맞이 분주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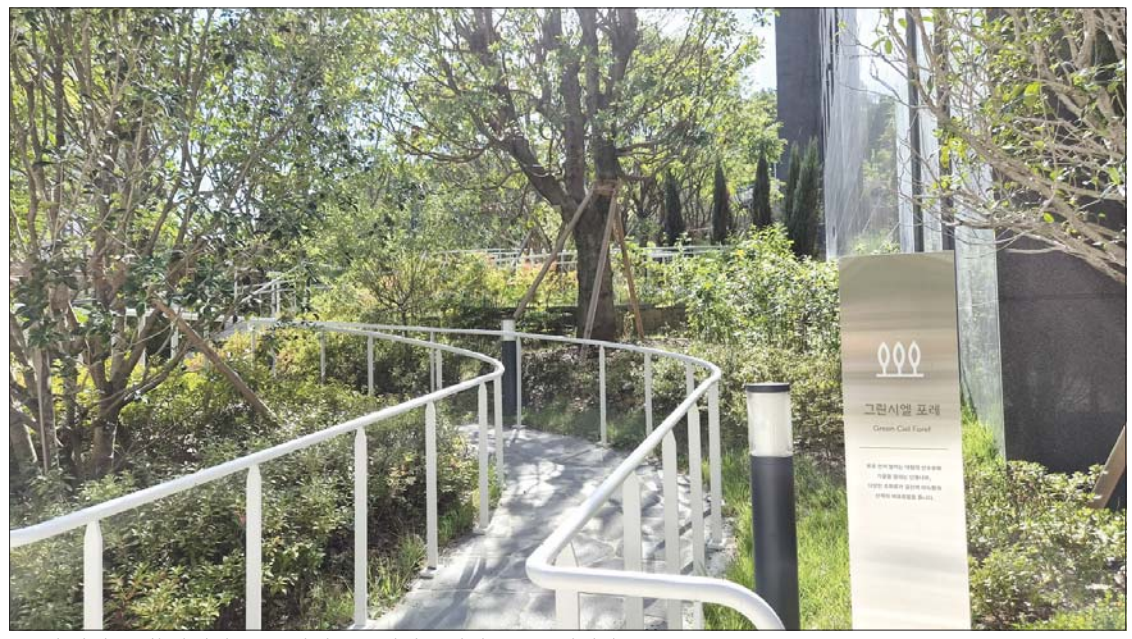
Life

오가노이드로
의학·식품 융합
새로운 가능성 제시
L2





'리프레시 가든' 계단형 수경시설.



'그린 시엘 포레' 산책길. 수목 사이를 돌면서 올라가도록 조성됐다.

층층이 펼쳐진 정원·굽이진 산책길… 금련산 녹음 '화룡점정'

아파트의 미학(美學)

드파인 광안

단지 '더 파인컷' 적용… 면 나누고 선 강조
지형 높낮이 살려 정원·산책길 입체적 배치
조경 통해 놀이-운동-휴식 자연스럽게 연결

부산 수영구 광안동은 광안리의 바다와 금련산의 숲이 가깝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에서 나와 3분가량 걸으면 '드파인 광안'이 눈에 들어 온다. 드파인광안은 지형의 높낮이를 살려 정원과 산책길을 입체적으로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경사면을 따라 나무를 심고 굽이진 길을 냈으며, 길이 넓어지는 곳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계단식 정원인 '그린 시엘 포레', 공공 보행통로의 '갤러리 가든' 등 공간의 위치와 쓰임에 맞춰 조경도 달리했다. 정원 너머로는 금련산의 녹음이 이어져 풍경에 깊이를 더한다.

드파인 광안은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 동, 총 1233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전용면적 36~115㎡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56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SK에코플랜트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드파인(DE'FINE)'을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하다.

단지에서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교와 수영터널, 번영로 등을 통해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광안리해수욕장과 센텀시티의 백화점·문화시설도 생활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와 수영중학교, 동이중학교가 가깝다. 남천동 학원가와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등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외관에는 드파인의 조형 콘셉트 '더 파인 컷(The Fine Cut)'을 적용했다. 면을 나누고 선을 강조한 입면에 유리를 활용한 커튼월룩과 측벽 특화 디자인을 더했다. 유리 면에는 하늘빛이 비치고, 저층부의 짙은 석재는 무게감을 준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햇살에 반짝이는 초록이 눈에 들어왔다. 높게 뻗은 소나무 아래로 키 작은 수목과 풀이 촘촘히 자랐다. 볕이 닿는 잎은 연둣빛으로 반짝이고, 그늘 아래 잎은 짙은 녹색을 띠었다.

중앙의 '아이코닉 가든'에 이르면 넓은 잔디밭과 수경시설이 펼쳐진다. 잔디 가장자리에는 수목과 휴게공간을 두고, 한편에는 금속 구체를 쌓아 올린 조형물을 세웠다. 둥근 표면마다 주변의 나무와 건물이 비쳤다.

조금 더 안쪽의 '그랜드 힐 가든'에서는 층층이 단을 낸 벽을 따라 물이 쏟아진다. 그 앞에는 긴 목을 뻗고 날개를 펼친 새 조형물이 수면 위로 솟아 있다. 물을 박차고 막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다.

'그랜드 힐 가든'은 2층으로 꾸몄다. 1층은 유리창으로 둘러 실내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 2층은 옆면을 열어 바람이 통하도록 했다. 외부 계단과 유리 난간 너머로 정원의 풍경이 이어진다. 1층 테이블에 앉으면 창밖을 채운 낙수가 눈높이에서 펼쳐진다.

숲을 주제로 한 '라 클레어 포레'는 지형의 높낮이를 살려 오르내리는 길마다 다른 풍경을 만나는 산책의 재미를 더했다. 계단식 정원인 '그린 시엘 포레'에는 흰 난간을 따라 완만하게 돌아 오르는 길을 냈다. 길이 굽을 때마다 눈앞의 나무와 뒤편 풍경이 조금씩 자리를 바꾼다. 중간중간 작은 쉼터도 마련했다.

이곳에는 봄에 꽃을 피우는 대형 산수유와 가을에 잎을 물들이는 단풍나무, 다양한 초화류를 심었다. 붉고 노란 잎이 섞여 계절의 변화를 보여준다.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리프레시 가든'이 나타난다. 대형 서어나무 아래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쉬거나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정원이다. 나무 너머 언덕에는 단청을 두른 기와지붕이 보인다. 일상적인 공간과 한국적인 미학이 겹쳐 차분하면서도 특별한 풍경을 만든다.

야외 운동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섰다. '그로잉 그라운드'에는 인조잔디를 깐 풋살장과 야외 운동기구를 배치했다. 산책을 하다가 잠시 들러 스트레칭을 하거나 근력운동을 하기에 좋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다이나믹 그라운드'는 색부터 경쾌하다. 물고기와 산호를 닮은 모양, 물결무늬와 알록달록한 고리가 바닷속 놀이터를 연상시킨다.

놀이터 가장자리를 길게 두른 흰 차양 아래는 어른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기둥이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고, 그 옆으로 테이블과 의자,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긴 의자가 놓였다. 놀이시설과 라운지, 그늘진 보행공간이 이어지는 모습은 휴양지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유아를 위한 '큐브 그라운드'는 토끼 모양의 조합놀이대와 사각 패턴을 적용한 휴게공간으로 꾸몄다. 놀이와 운동, 휴식이 각기 다른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산책길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단지 정원 너머로 금련산 산자락이 이어진다.



수경시설과 정원이 마련된'그랜드 힐 가든'.



'다이나믹 그라운드'에 마련된 라운지. /성채리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프로야구 우천 중단되면 재개까지 평균 47분…경기 중단 사유 76%가 비
▲ 축구협회 '경고 댓글'에 사라지는 가짜뉴스… "적극적으로 대처"
▲'햄스트링 부상' 삼성 구자욱, 배팅 훈련 시작… "출혈·부종 잡힌 상태"
▲SSG, 박정권 2군 감독과 작별…"육성 시스템 개편한다"



▲상대 머리채 잡은 비니시우스, 4경기 출전 정지 징계…엘클라시코 결장
▲"암표 막자" KBO·문체부·경찰청, 포스트시즌 경기서 근절 합동 캠페인

SAMSUNG

신혼의 시작, 특별한 혜택

삼성 AI 구독 페스티벌

2026. 9. 28 ~ 10. 31

구독에 블루패스를 더하다

삼성 AI 구독

행복한 신혼, 삼성 AI 구독과 함께하세요

구독 혜택 최대 **20%**

구독 시, 할인 · 포인트 등 최대 20% 혜택 증정

- 최대 20% 구독 혜택은 단품 할인 5%, 선납 할인 최대 5%, 다품목 할인(신규 구독 고객) 최대 5% 및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최대 약 5% 합산 기준

* 최대 20% 구독 혜택은 구독 판매처에 따라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총 구독료의 최대 20% 할인 혜택 증정(일부 품목 한정)

구독료 지원 최대 **6개월** 상당

추천 모델 구독 시
최대 6개월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단,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태블릿(일부 모델 대상) 추천 모델 구독 시에는 3개월 구독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증정
* 단, 기업 고객에게는 추천 모델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다품목 혜택 최대 **600만** 상당

일시불 구매 · 구독 시 품목 수에 따라
최대 600만 상당 멤버십 포인트 추가 증정

- 최대 22개 품목을 일시불 · 구독 결합으로 구매 시 최대 600만 상당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 증정

* 구독 또는 일시불로만 구입 가능한 최대 품목 개수와 혜택은 달라질 수 있음
* 다품목 혜택은 행사 매장에 따라 대상 품목 및 최대 증정 포인트 기준이 상이함
* 단, 기업 고객에게는 동일 장소에 동일 품목 10대 이상 구독 시 총 구독료의 5% 할인 혜택 증정 (대상 품목 : 냉장고/세탁기/건조기/에어컨/공기청정기/정수기)

Our New Life

* 본 행사 및 구독 혜택은 온/오프라인 행사 채널의 대상 모델에 한해 적용되며, 경로별 적용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적용 조건, 지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 일부 AI 기능 없는 모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고객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법인에 한정됩니다. * 구독 및 일시불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사은품, 포인트 등)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